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 체 사 상 으 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67호 【루계 제23119호】 주체99(2010)년 6월 16일 (수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간직하고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지니고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콤퓨터과학대학 콤퓨터망체계강좌 교원들은 지혜와 열정을 합쳐 만경대혁명사적관의 관리운영을 최상의 수준에서 할수 있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고 평양제1백화점 4층작업반원들은 10여년세월을 하루와 같이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바쳐오고있다.

농업성 부원 김수경, 대흥지도국 산하단위 로동자 김예성은 절세위인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 주변을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순결한 량심을 바치였다.

신포시 신포중학교 분과장 김인숙, 신흥중학교 교원 김태길, 평안남도정보통신국 로동자 김성순, 평성시사회급양관리소 로동자 김옥, 중구역 동안동 97인민반 김련국도 어버이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받들어모시는 사업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다.

고산군상업관리소 소장 성희는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군내 주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짜고들면서 온 가족의 마음을 담아 많은 지원물자를 마련하여 혁명의 성지를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에게 보내주었다.

지난 기간 원군사업을 잘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안은 무역은행 책임부원 조은희는 그 은정에 보답할 일념밀에 여러차례에 걸쳐 희천발전소건설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었으며 평성시남새 및 식료품수매관리소 로동자 김명실도 힘있는 지원으로 발전소건설을 다그치는데 기여하였다.

은률군 금산포로동자구 83인민반 김혜순과 그의 가정은 애국의 마음안고 나라의 철강재생산에 보탬을 줄 좋은 일을 찾아하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격정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혁명적열정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뚜니지인민통일당 총비서와 중국 길림성인민정부대표단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뚜니지인민통일당 총비서가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무함마드 부쉬하총비서가 15일 김영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에게 전달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중국 길림성인민정부대표단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중국 길림성인민정부 부성장인 진위근단장이 15일 리태남 내각부총리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조선인민의 혼연일체는 필승불패이다

불패의 보루-조선의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 행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에티오피아청년주체사상연구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위원회 아라다지부에서는 업적토론회가 2일과 3일에 진행되였다.

토론회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에티오피아청년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각하의 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에는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이 담겨져있다. 오늘 조선의 사회주의가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속에서도 끄떡하지 않는것은 모든 사업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신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 그리고 그이께서 발표하신 로작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에티오피아청년주체사상연구위원회 아라다지부 책임자는 《**김정일**각하와 조선인민의 혼연일체》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조선인민은 **김정일**각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있다, 조선인민은 그이를 친어버이로 믿고 따르고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김정일**각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조선인민의 혼연일체는 필승불패이다고 격찬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연구토론회가 몽골과 프랑스에서 8일과 9일에 진행되였다.

토론회들에는 몽골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몽골평화친선련맹, 프랑스주체 및 선군사상연구소조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몽골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지도리사회 성원 느.사란토야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의 기본내용에 대하여 깊이있게 해설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선군정치는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여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독창적인 정치이다. 조선인민은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데 대한 목표를 제기하고 경제강국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있다. 조선의 현실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건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프랑스주체 및 선군사상연구소조 책임자 쟝 마리 람브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각하의 고전적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의 골자는 사회주의는 사상을 틀어쥐면 승리하고 사상을 놓치면 망한다는것이다.

김정일각하께서는 로작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수립과 공고발전의 합법칙성,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오늘 조선의 사회주의가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압살책동에도 끄떡하지 않는 불패의 보루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시종일관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시는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이 최대로 폭발되여 오늘 조선에서는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기적들이 날에날마다 창조되고있다.

사랑과 믿음의 정치

신문들 특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인디아, 네팔신문이 특집하였다.

인디아신문 《인디아 유럽 뉴스 앤드 인포메이슌 뷰로》 8일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를 모시고 《조선로동당을 불패의 당으로》,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 등 여러 제목의 글들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사상사업을 앞세워》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사회주의는 사상을 틀어쥐면 승리하고 사상을 놓치면 망한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15년전인 1995년 6월 19일 **김정일**령도자께서 발표하신 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의 골자라고 할수 있다. **김정일**령도자의 이 로작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 당들과 인민들이 반드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네팔신문 《노야 꼬뜨빠르와》 6일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를 모시고 《인민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김정일**각하는 명실공히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펴시는 정치가이시라고 하면서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절세위인의 고매한 풍모를 격찬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 통신, 신문이 보도하였다.

라오스통신은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도자께서 기계공장과 가스화공정을 현지지도하시였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는 오문현이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 개발도입하여 기계제품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킨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또한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 새로 건설된 가스화공정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생산공정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가스화대상의 여러곳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남흥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건설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그처럼 아름찬 대건설공사를 단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한것은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시면서 대중적영웅주의와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위대한 창조물을 일떠세운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현대적으로 건설한 로동자합숙, 종합편의를 비롯한 후방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로동자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남흥가스화대상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중국의 《료녕조선문보》 8일부와 네팔신문 《라이징 네팔》 9일부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 새로 건설된 가스화공정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라오스와 핀란드에서 보도하였다.

10일 라오스통신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능력확장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 능력확장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과수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최상급의 수준에서 건설된 이 농장이야말로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희한한 풍경이라고 하시면서 한평생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먹이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던 **김일성**주석의 념원을 드디여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된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같은 대규모의 과수농장건설은 집단주의를 생리로 하는 조선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수행할수 있는 대업이라고 하시면서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은 참으로 위대하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최신식설비들로 장비된 모든 공정들이 하나의 자동흐름선체계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사과말린편공장을 돌아보시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인민들에 대한 과일공급뿐아니라 나라의 과수업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본보기농장이라고 하시면서 농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9일 핀란드 코민포름통보사 인터네트잡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 새로 건설된 가스화공정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실었다.

본사기자

전체 조선민족은 6.15의 기치밑에 단합하여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물리치고 조국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당, 단체 련합성명

우리 민족앞에 통일의 밝은 전망을 펼쳐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0돐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 단체들은 반통일세력에 의해 조성된 오늘의 엄중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숭고한 애국의 일념으로부터 온 겨레의 뜻을 모아 성명한다.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통일과 반통일사이의 대결이 그 어느때보다 첨예하고 복잡한 속에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핵으로 하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은 통일문제해결의 가장 옳바른 원칙과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준 새 세기의 통일강령이고 민족의 총의와 지난 시기의 모든 북남합의들을 총집대성한 통일의 최고기치이다.

6.15공동선언은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조국통일사상과 업적이 빛나게 구현되고 위대한 장군님의 투철한 민족자주리념과 확고한 통일의지, 열렬한 애국, 애족, 애민의 숭고한 뜻이 맥박치는 통일의 리정표로서 발표되자마자 온 겨레와 전세계의 폭풍같은 지지환영을 불러일으켰다.

6.15공동선언발표는 외세에 의해 반세기이상 지속되여온 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자주통일의 새 력사, 새시대를 안아온 획기적사변이며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에서 전환적국면을 마련한 민족사에 특기할 일대 쾌거이다.

오랜 세월 적대하며 살아온 우리 민족이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화해하고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다그침으로써 지난 10년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돌이켜보면 6.15는 이 땅에 얼마나 경이적이고 가슴벅찬 현실을 펼쳐놓았던가.

끊어졌던 강토가 하나로 이어지고 갈라진 동포형제들이 꿈같이 다시 만나 혈육의 정을 나누며 삼천리강산에 통일의 만세함성이 세차게 메아리치는 속에서 금강산관광길이 활짝 열리고 개성공업지구가 고고성을 터쳤다.

온 겨레가 기쁨과 환희로 끓어넘치고 감격과 흥분으로 설레이던 격동적인 나날들이였다.

6.15는 평화와 통일번영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안아와 북남관계발전을 새로운 경지에로 더욱 힘있게 추동하였다.

정녕 6.15는 분렬된 우리 민족이 통일민족으로 다시 태여난 뜻깊은 날이며 조선민족의 통일의지와 기개를 만방에 떨친 민족경사의 날이다.

6.15통일시대의 흐름이 오늘까지 이어졌더라면 북남관계는 더 멀리 전진하고 통일의 날은 그만큼 앞당겨졌을것이다.

그러나 6.15의 위업은 지금 내외반통일세력의 엄중한 도전과 좌절에 직면하고있다.

남조선의 현 보수《정권》은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에 악랄하게 매달리면서 6.15공동선언을 짓밟고 그 리행을 한사코 가로막음으로써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었다.

역적패당에 의해 북남사이에 진행되여오던 대화와 접촉들이 모조리 차단되고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였으며 개성공업지구사업이 위기에 처하고 민간협력사업이 질식되였다.

괴뢰보수패당은 외세와 야합하여 체제대결과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함으로써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게 하였으며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함선침몰사건과 같은 특대형모략극을 조작하여 전쟁의 불구름을 엄중하게 몰아오고있다.

괴뢰패당이 대결과 전쟁책동에 미쳐날뛰고있는것은 어떻게 하나 남조선인민들의 가슴속에서 6.15를 영영 지워버리고 그것이 되살아나지 못하게 하자는데 그 흉악한 목적이 있다.

동족대결과 외세의존에 환장한 한줌도 못되는 역적패당에 의해 6.15시대의 거창한 창조물들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통일로 향한 겨레의 발걸음이 지체되고있는것은 실로 통탄할 일이다.

현실은 북남선언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6.15통일시대가 아무리 좋았다 해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백지화되여 재난과 죽음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평화냐 전쟁이냐,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심각한 사태앞에서 6.15의 소중함이 오늘처럼 절실하게 느껴진 때는 일찌기 없다.

정세가 복잡하고 전쟁위험성이 클수록 6.15공동선언의 진리성과 생명력은 더욱 빛을 뿌리고 6.15자주통일시대를 이어나가려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은 한층 강렬하게 분출하고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남조선의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민주진보진영이 승리하고 보수패당이 패한것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6.15의 승리이고 통일애국세력의 승리이며 분렬과 대결, 전쟁을 추구하는자들에 대한 민심의 응당한 징벌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하여 6.15공동선언을 유린하고 대결과 전쟁에 미쳐날뛰는 친미괴뢰파쑈도당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가 무엇인가를 내외에 똑똑히 보여준 《선거》결과는 겨레의 가슴속에 깊이 뿌리내린 6.15정신을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으며 자주통일로 향한 민족의 대행진을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6.15의 혜택과 덕을 한껏 누려본 우리 겨레는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리행하는것만이 우리 민족의 살길임을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오늘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리행하는 길밖에 없다.

6.15공동선언에 자주도 있고 평화도 있고 통일도 있으며 민족의 번영도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만난이 겹쌓이고 정세가 엄혹하여도 조선민족의 명예와 존엄을 걸고 6.15공동선언을 지키고 실천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한다.

세계가 민족의 선택을 지켜보고있는 이 엄숙한 시각 우리 공화국정당, 단체들은 6.15공동선언발표 10돐에 즈음하여 온 겨레와 함께 력사와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사명감을 더욱 절감하면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우리의 원칙적립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민족최고의 통일강령인 북남공동선언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고 철저히 리행하여야 한다.

현시기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의 유일한 타개책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실천하는것이다.

북남공동선언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절대적기준이며 평화적립장과 대결과 전쟁의 립장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전체 조선민족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최고의 지위에 놓고 적극 지지하며 최우선적으로 리행해나가야 한다.

둘째, 우리는 북남공동선언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속과 정견, 과거를 불문하고 누구와도 손잡고 나갈것이지만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모독하며 짓밟는자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6.15의 기치밑에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전민족의 대단합을 이룩하는것은 반통일세력의 분렬과 대결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를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북과 남의 수뇌분들이 마련하고 온 겨레와 유엔을 비롯한 전세계가 전폭적으로 환영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누구도 어길 권리가 없으며 그것을 유린하는것은 곧 북남합의를 위반하고 내외여론을 거역하는 반민족적 범죄행위이다.

우리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6.15를 지지하는 남조선과 해외의 그 어떤 정치세력이나 단체, 개별적인사들과 아무때나 만나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협의해결해나갈것이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을 헐뜯고 그에 배치되게 행동하는자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징벌할것이다.

셋째, 미국은 6.15공동선언의 리행을 방해하지 말며 우리 민족문제와 북남관계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 장본인이고 통일을 방해하는 주범이며 6.15위업의 전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우리 민족에게 불행과 재난만을 강요하는 미국은 우리 민족문제에 간섭할 자격이 없으며 미국이 손을 떼는 여기에 조국통일의 지름길이 있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출로가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반공화국핵소동과 대결모략책동을 견결히 반대배격해나서야 하며 북남관계와 우리 민족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동족과 대결하고 외세에 붙어 명줄을 부지해보려는 남조선의 친미사대매국패당에 철추를 내려야 한다.

반민족적인 외세와의 공조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며 미국과 야합하여 대결과 전쟁에 미쳐날뛰는 괴뢰호전광패거리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려야 한다.

남조선의 정당, 단체, 각계층 인민들은 괴뢰역적패당의 반통일대결책동에 총파산을 선고하고 발악하는 반역의 무리들을 결정적으로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이 6.15의 기치밑에 단합된 힘으로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과감히 물리치고 거족적인 통일대성전에 한결같이 총궐기해나설 때 우리 겨레가 그처럼 바라는 조국통일의 대문이 활짝 열릴수 있다.

시련과 난관, 우여곡절은 있어도 정의의 6.15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며 위대한 선군의 해발아래 우리 민족은 머지않아 조국통일의 세기적숙원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당, 단체들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력사적사명과 영예로운 임무를 끝까지 다해나갈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제기구들과 세계각국의 정부, 정당, 단체들이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6.15를 고수, 리행하며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한다.

주체99(2010)년 6월 15일

평 양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사랑속에 영생하는 전사

리찬선동지의 한생에 넘친 고귀한 은정

우리 사회에서 혁명적동지애라는 말은 혁명동지들사이의 사랑이라는 일반적인 뜻을 벗어나 수령과 전사, 령도자와 인민들사이의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혈연적관계를 의미하는 뜻깊은 말로 불리우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여 마련하시고 가꾸시여 물려주신 귀중한 유산인 혁명적동지애의 전통을 확고히 이으시여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떨쳐가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는 당에 충실한 혁명동지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을 동지애로 끝까지 완성할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품에 안아 숭고한 믿음과 사랑으로 키워주신 전사들가운데는 장군님께서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에 대하여 회고하실 때면 곁에서 나의 일을 제일 많이 도와준 충실한 방조자였다고 하시며 잊지 못해하시는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였던 리찬선동지도 있다.

리찬선동지의 한생에 넘친 크나큰 믿음과 은정에 대한 이야기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르고 받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리가 무엇으로 하여 그리도 굳건하고 순결한가를 감동깊게 말해주고있다.

능력있는 당선전일군으로 키워주시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당사업과 국가사업,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변혁과 전변이 이룩되고있던 때인 주체61(1972)년 11월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지방에서 생활하고있는 리찬선동지에 대하여 료해하시였다.

리찬선동지로 말하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52(1963)년 12월에 잠시 만나보신적이 있는 일군이였다. 그때 그이께서는 평양시 중구역에 있는 한 상점에 소문없이 들리시여 상품공급정형을 알아보고계시다가 한 일군이 정중히 올리는 인사를 받게 되시였다. 그 일군이 바로 리찬선동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신임으로 어느 한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로 임명받고 그 준비를 위해 상점에 들리였다가 뜻밖에도 흠모하여마지않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뵙게 된 리찬선동지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평소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풍모에 대하여 많이 들어왔던 리찬선동지는 그이께 기대에 비해 자기의 준비정도가 낮은데다가 대외사업이 생소하다보니 걱정부터 앞선다고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고나서 대외사업과 생활에서 도움으로 될 조언을 주셨으면 한다고 청을 올리였다.

첫인상에 소박하고 진실한 성품이 엿보이는 일군이였다. 그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의 청을 받으시여 맡은 임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깨우쳐주시고나서 일도 중요하지만 몸조심하여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하시며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리찬선동지를 만나시여 이야기를 나누신것은 고작하여 10분도 되나마나한 시간이였다. 하지만 혁명의 길에서 만나시여 가슴에 새겨두신 일군에 대해서는 언제나 잊지 않으시는 그이께서는 1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도록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계시였다.

리찬선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체계적으로 자라난 로동계급출신의 일군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리찬선동지에 대하여 료해하시는 과정에 그가 평안남도 성천군의 가난한 농민가정에서 출생하여 해방전에 목재소와 철도역에서 로동생활을 하다가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철도운수부문에서 정치선전일군으로 사업하면서 새 조국건설과 전시수송을 보장하는데 적극 기여한데 대하여 아시게 되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를 당중앙위원회에 불러주시여 당사업도 맡기시고 인민정권부문의 책임적인 직무도 맡겨주시며 키워주신 사실과 리찬선동지가 수령님의 뜻을 충실히 받들기 위하여 직심있게 노력하여 당건설리론에도 정통하고 독학으로 외국어도 여러개 소유하였으며 풍부한 상식을 소유하게 된데 대하여서도 아시게 되였다.

어느모로 보나 믿음이 가는 일군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 한사람의 귀중한 일군을 찾아내신것이 여간만 기쁘지 않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받들어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뜻과 운명을 같이할 동지를 얻는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곧 리찬선동지를 집무실로 부르시였다. 그를 반갑게 맞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송구하여 몸둘바를 몰라하는 리찬선동지를 정깊게 바라보시며 우리는 이미 구면인데 어려워할게 있는가고 하시면서 그에게 자리를 권하신 다음 그와 처음으로 만나시였던 때의 일도 추억하시고 그동안 그가 걸어온 생활경로도 따뜻이 물어주시였다. 동지적사랑이 넘쳐나는 가운데 시간이 얼마간 흘렀을 때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정중한 어조로 그에게 당중앙위원회에서 일하게 된데 대하여 알려주시고 그를 뜨겁게 축하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동무가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동무에게 특별히 돌려주시는 정치적신임인것만큼 일을 잘하여야 한다고, 동무는 로동계급출신 간부인것만큼 위대한 수령님을 누구보다도 견결히 옹위하고 수령님의 혁명위업, 우리 당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실현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참다운 일군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며 자신께서 도와주겠으니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사업을 본때있게 내밀라고 고무해주시였다.

끝없는 감격과 영광에 휩싸인 리찬선동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임과 기대에 몸과 마음 다 바쳐 보답할 결의를 말씀드리였다.

이때부터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슬하에서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핵심으로 살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위대한 전환이 이룩되던 그때 그이께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리찬선동지에게 깊은 관심을 돌리시여 그가 실천을 통하여 높은 정치실무적자질을 갖춘 일군으로 준비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주체62(1973)년 그해에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례년에 없는 대풍이 들었다. 그런데 농촌에 자동차와 뜨락또르가 부족하여 11월에 이르도록 논과 밭에서 곡식들을 미처 못실어들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사실을 두고 무척 걱정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문제를 당중앙위원회에서 맡아 풀기로 결심하시고 통이 큰 경제선동작전을 펴시였다. 그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리찬선동지에게 승리자동차종합공장(당시)에 내려가 경제선동사업을 책임지고 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이께서 포치하신 경제선동대에는 당일군으로부터 수백명의 예술인들과 출판보도일군들이 망라되고 신문, 방송, 텔레비죤, 영화를 비롯한 온갖 선전선동수단들이 발동되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포치하신 경제선동의 대작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대중정치선동활동의 빛나는 경험을 사회주의대건설의 거창한 현실에 구현하기 위한 위대한 발기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사상사업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경지가 개척되게 된다는 크나큰 흥분을 가슴에 안고 공장으로 달려나간 리찬선동지는 즉시 지휘부사무실벽에 생산실적표를 그려붙이고 경제선동을 벌리도록 하였다. 공장의 매 직장에 들어간 경제선동대원들은 현장에서 로동자들의 일손을 도우면서 당정책도 해설해주고 격동적인 연설도 하였으며 전투속보도 발간하고 혁명적인 노래도 부르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였다. 하지만 경제선동을 처음으로 해보는 리찬선동지에게 있어서 예술인들의 대부대를 움직이고 현대적인 선동수단들을 능숙하게 활용해야 하는 새로운 경제선동사업을 원만히 지휘하여 알찬 열매를 맺게 한다는것은 헐한 일이 아니였다. 리찬선동지는 자기들이 벌리는 경제선동활동에 비해 생산실적이 얼마 오르지 못하는 사실을 두고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때인 주체62(1973)년 11월 22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리찬선동지를 비롯한 경제선동대의 일군들을 불러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기간의 사업을 중간총화지어주시고 이번 선전그루빠는 깜빠니야 기간에 군중들을 발동시켜 현재 계획이나 하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그루빠가 철수해도 일이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다시말하여 사상혁명의 전환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제선동에서 나타난 편향들을 바로잡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경제선동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을 고무추동하는 수단인것만큼 당의 경제정책을 해설선전하는것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키워주는 교양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경제선동이 사람들로 하여금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고 진심을 바쳐 일하도록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방법과 형식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리찬선동지는 눈앞이 환해졌다. 가슴벅찬 환희를 안고 현지로 내려간 리찬선동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중심을 틀어쥐고 선동활동을 박력있게 지휘하였다. 경제선동활동이 참신하고 실속있게 벌어지자 선동대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고무된 공장의 로동계급은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 그해 년말안으로 1만대 자동차 생산목표를 앞당겨 점령하였다.

우리 당력사에서 처음으로 경제선동을 발기하시고 이끄시여 그 생활력을 실천을 통하여 확증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후 주체63(1974)년 말에 조직되였던 《70일전투》와 그 이듬해 여름에 있은 검덕광업련합기업소에 대한 전국적인 지원전투 그리고 주체65(1976)년에 있은 전력증산전투 등 경제부문의 중요한 전투가 있을 때마다 경제선동대를 파견하시고 그 지휘를 리찬선동지에게 맡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보살피심속에서 리찬선동지는 새로운 형식의 우리 당경제선동의 능숙한 담당자로 되였으며 대중정치사업, 출판보도선전, 방송선전, 강연선전, 문학예술사업 등 사상사업의 모든 분야를 지도할줄 아는 능력있는 당선전일군으로 성장하였다.

충실한 방조자로 굳게 믿으시고

리찬선동지가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사업하면서 쓴 두권의 덕성실기집이 있다. 《인민을 위하시는 길에서》라는 표제의 이 덕성실기집들에는 그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를 수행하는 길에서 그리고 그이께서 주시는 과업을 맡아 수행하는 과정에 가슴뜨겁게 체험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한량없는 사랑의 감동깊은 사연들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키우신 세상에서 제일인 우리 인민을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인민으로, 모두가 선망의 눈길로 쳐다보는 존엄높은 인민으로 내세우시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뜻이고 결심이다.

이 확고한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계시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분투하시였다.

평양시 넓은 면적에 현대과학기술이 도달한 최신의료설비로 손색없이 꾸려진 평양산원과 현대적이고 종합적인 문화위생시설이 훌륭히 갖추어진 창광원이 일떠서게 된 경위도 그렇다.

주체68(1979)년 2월 중순의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밤중에 협의회를 소집하시고 일군들을 부르시였다.

협의회에 참가한 리찬선동지는 밤이 퍽 깊은 때에 긴급하게 부르신것으로 보아 필경 시간을 다투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제기된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군들을 둘러보시더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근에 산원과 목욕탕건설과 관련하여 다시금 간곡한 교시를 주시였다고 하시면서 나는 올해에 다른 건설은 좀 못하더라도 평양시에 산원과 목욕탕을 건설해주기로 결심하였다고, 이번에 건설하는 산원과 목욕탕은 우리 세대에 평양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의의있는 선물로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 자리에 있던 일군들은 심각한 가책으로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사실 산원과 목욕탕건설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구상되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시에 현대적인 산원과 목욕탕만 건설해주면 우리가 인민을 위하여 할수 있는 일을 거의다 하는것으로 된다고 하시며 일군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이 건설을 꼭 해야 한다고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에는 우리 인민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다함없는 사랑이 담겨져있었다.

그런데 산원과 목욕탕건설은 나라사정으로 하여 한해두해 뒤로 미루어졌던것이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인민에게 베푸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은정이 제때에 미치지 못하는것을 가슴아프게 여기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 건설을 직접 당에서 맡아할 용단을 내리시였던것이다.

오늘 세상사람들이 부러워마지 않는 평양산원과 창광원건설작전은 이렇게 펼쳐지게 되였다.

산원과 목욕탕을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이 완벽하게 구현된 기념비적건축물로 일떠세우실 확고한 결심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에도 리찬선동지에게 이 건설사업을 당적으로 지도할데 대한 과업을 맡겨주시였다.

리찬선동지는 산원과 목욕탕의 건설이 시작되여 준공되기까지의 나날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도 수행하고 수많은 가르치심도 받으면서 인민에 대한 그이의 끝없는 사랑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건물의 설계에 앞서 일군들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이름난 산원과 목욕탕, 수영장을 다 돌아보고 와서 설계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는 한편 이 분야에서 이룩된 최신성과들에 대한 수많은 자료들을 몸소 료해하시면서 산원과 목욕탕을 최대규모로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건축물로 일떠세우도록 이끄시였다. 그리고 건설과정에 여러차례의 현지지도와 거듭되는 협의회들을 통하여 자그마한 부족점도 없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건설이 완공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의료설비들과 편의봉사설비와 기구들을 완전무결하게 최고급으로 갖추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창광원의 이름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들의 의견을 받도록 현상모집을 하게 하시고 제기된 안들을 하나하나 검토하신 다음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다.

우리 인민에게 가장 좋은것, 제일 훌륭한것을 안겨주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사랑은 끝이 없었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은 거리형성과 살림집들로부터 인민들의 출퇴근길과 지어는 녀인들의 머리단장과 옷차림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미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사업하면서 리찬선동지는 어머니당의 당일군으로서 어떤 풍모를 갖추고 어떻게 인민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가를 깊이 가슴에 새기며 장군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진심을 바쳐 일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언제인가 농민들의 생활형편을 알아보시기 위하여 몇몇 일군들을 농촌에 보내시였을 때였다. 그때 리찬선동지도 농촌에 나가 여러 농가들에 들리여 생활형편도 알아보고 농민들과 담화도 하였다. 일군들이 돌아왔을 때였다. 그들은 저저마다 농민들의 생활이 이전과 대비할수 없게 향상된데 대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말씀드리였다. 그것은 리찬선동지도 목격한 사실이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기들을 농촌에 보내신 의도를 다시금 되새기며 리찬선동지는 그이께 농민들의 생활수준이 아직도 도시주민들의 생활수준에 비해 뒤떨어지고있는데 대하여 자신이 보고들은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가 올리는 말씀을 들으시며 다시금 그의 진실한 마음을 뜨겁게 느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리찬선동무의 말이 옳다고 긍정하시며 당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위하여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자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리찬선동지에게서 가식이 없는 고지식한 마음과 솔직성과 진실성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시였다.

곁에 데리고 과업을 맡겨주실수록 사랑이 가고 믿음이 두터워지는 전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리찬선동지를 굳게 믿으시고 특별히 많은 일감을 안겨주시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외국방문을 하실 때에도 보도일군들을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리찬선동지를 우리 당사상사업을 맡아할 유능한 일군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참으로 많은 공력을 들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리찬선동지를 현지지도의 길에도 자주 데리고다니시였으며 때없이 곁으로 불러주기도 하시였다. 그 뜻깊은 자리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리찬선동지의 사업정형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당사상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부터 당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 당일군들이 지녀야 할 풍모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때마다 리찬선동지는 당사상사업발전을 위하여 바치시는 그이의 크나큰 로고와 함께 전사들이 사업하는 과정에 길을 헛갈릴세라 앞길을 밝혀주시고 걸음이 더딜세라 떠밀어주시는 숭고한 동지적사랑에 눈굽이 후더워오르군하였다.

리찬선동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사업과 생활의 지침으로 가슴에 새겨안고 그이께서 바라시는 당일군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그 나날에 리찬선동지는 사업능력과 작풍에 있어서나 인간적인 면모에 있어서나 손색이 없는 우리 당의 참된 당일군으로 자라났다.

주체73(1984)년 10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리찬선동지에게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중책을 맡겨주시였다.

전사와 함께 부르신 《동지애의 노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언제인가 일군들과 담화하시는 자리에서 혁명은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진리는 자신께서 대를 이어 물려받은 고귀한 유산이라고 하시면서 나는 이 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혁명동지들을 제일 사랑하며 나자신처럼 믿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동지를 천금주고도 살수 없는 천하에 제일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동지애는 리찬선동지의 신상에도 한생토록 뜨겁게 미치여 그의 삶을 영광으로 빛내주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충실하고 진실하며 작풍도 좋은 리찬선동지를 각별히 아끼고 사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리찬선동지의 사업과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여 보살펴주시였을뿐아니라 식성까지 다심한 정으로 헤아리시여 여름철에 식탁에 오른 신선한 부루를 보시고도 부루쌈을 무척 좋아하는 리찬선동지가 생각나시여 그를 데려다 단란한 점심식사를 마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특히 몸이 약한 리찬선동지의 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1978년에 회의도중 리찬선동지에게서 뇌혈전의 초기증상이 나타났을 때였다. 그때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사실을 제일먼저 알아보시고 몸소 구급차를 불러 그를 입원시키시고 치료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그리고 그가 병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에는 제시간에 퇴근하는지 알아보시려고 사무실에 《검열전화》까지 걸어보시고 집안에서도 아무때나 할수 있는 치료운동기재도 마련하여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동지적사랑에 의하여 건강을 회복한 리찬선동지는 중요한 직책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던 리찬선동지가 10여년후 본래 앓던 위병이 도져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였을 때였다. 그의 치료를 두고 깊이 마음쓰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각국에 주재하고있는 우리 나라 대표부들에 그의 병력서를 보내시여 좋다는 약은 다 써보게 하시고 그를 현대의학이 발전하였다고 하는 나라들에 보내여 세계적으로 소문난 림상전문가들의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온갖 대책을 다 취해주시였다.

리찬선동지는 외국에 가서 수술을 받는 과정에 자기의 병이 더는 고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것을 알았다. 그때 그가 먼저 생각한것은 당일군으로서 자기가 당과 혁명을 위하여 다소나마 기여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리하여 그는 운신조차 할수 없는 몸이였지만 낮에는 시내의 곳곳을 돌아보고 각계층 사람들과 담화도 하였으며 밤에는 밤대로 그 나라에서 발간되는 여러 출판물들을 펴놓고 지면취재를 하며 새벽을 맞군하였다. 이렇게 그는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며 사회주의신념을 더 굳건히 다지도록 하는데 이바지할 교양자료를 만들어 경애하는 장군님께 올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큰 수술을 받은 그가 그런 일을 하였다는것이 눈물이 나도록 고마우시여 그 자료들을 가지고 교양사업을 하도록 하시는 한편 그의 사업의 온갖 편의를 보장하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주체81(1992)년 2월 16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느라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하여 소박한 축하연을 차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지적사랑이 넘쳐나는 이날의 뜻깊은 자리에 집에서 병치료를 하고있는 리찬선동지도 불러주시였다.

그때 리찬선동지는 인정깊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불치의 병에 걸린 전사를 보시면 얼마나 피로와하시랴 하는 생각으로 침상결에 텔레비죤을 옮겨놓게 하고 화면에 모셔지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사무치게 그리운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그런데 그이께서 뜻깊은 자리에 자기를 잊지 않고 불러주시였으니 리찬선동지는 그이의 숭고한 동지애의 세계에 눈물을 금할수 없었다.

연회장은 희세의 위인들을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영광과 행복감으로 뜨겁게 설레였다. 일군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긍지와 자부심을 격정에 넘쳐 노래하고 시로 읊었다.

리찬선동지도 마음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불편한 몸이였지만 애써 자리에서 일어나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그의 노래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에이는 아픔을 자아내게 하였다.

그가 노래를 다 부르고 앉으려고 할 때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만!》 하시며 일어나시더니 그에게로 다가가시여 팔을 꽉 부여잡으시고 한동안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시다가 말씀하시였다.

《찬선동무, 나와 함께 〈동지애의 노래〉를 부릅시다.》

순간 장내에 폭풍같은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이렇게 되여 리찬선동지는 경애하는 장군님과 함께 뜻깊은 《동지애의 노래》를 부르게 되였다.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시련의 고비넘으리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생사를 같이하리라
…

저력있는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눈가에도, 갈린 목소리로 따라 부르는 리찬선동지의 눈언저리에도 맑은것이 빛났다.

노래가 2절로 넘어가자 모두가 목메인 소리로 합창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림종을 앞둔 전사와 팔을 겯고 부르신 《동지애의 노래》, 그것은 동지애를 조선혁명의 붉은 기발로, 혈통으로 틀어쥐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빛나게 실현하시려는 장군님의 철의 의지, 숭고한 사랑의 분출이였다.

그때로부터 2개월반이 지난 1992년 5월 2일 리찬선동지는 67살의 나이로 우리곁을 떠났다.

그의 사망에 대한 비보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고인의 령구가 안치된 곳을 찾으시고 리찬선동무가 지금나이로 보아 한 10년은 더 일할수 있었는데 너무 일찍 갔다고, 참 아까운 사람을 잃었다고 하시며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그러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리찬선동지의 유가족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고 내가 있고 같이 일해온 동지들이 있는데 걱정할것이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리깊은 사랑에 의하여 리찬선동지는 애국렬사릉에 안치되여 영생의 삶을 누리고있다.

동지애의 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그이를 높이 모시여 조선혁명은 선군시대의 년대기들에 일심단결의 화폭을 더욱 감동깊이 수놓으며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동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 우리 조국을 강성대국으로 떠올리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할것이다.

본사기자 리수근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갈 결의에 넘쳐있다.
—배천군 조옥회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뜨거운 조국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조국관을 체질화한 선군조선의 참된 애국자, 강성대국의 뿌리가 되자!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발표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있는 이 구절이 어찌하여 사람들의 가슴을 세차게 격동시키는것인가.

그것은 년대와 년대를 넘어, 세기를 이어 조국청사에 창조와 건설의 위대한 영웅서사시를 수놓아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패의 정신력의 근저에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조국관이 자리잡고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가슴속에는 기나긴 인류사와 민족사의 흐름과 더불어 사람들이 조국에 대한 각이한 리해와 표상들을 가지고있던 때 조국에 대한 정확하고도 완전무결한 정의를 안겨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이 깊이 새겨져있다.

예술영화 《월미도》가 새로 나와 사람들의 가슴을 틀어잡으며 방영되던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예술영화 《월미도》에서는 조국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조국은 곧 수령님이시라는 철학적인 해답을 주고있습니다, 조국은 곧 수령님이시라는것이 예술영화 《월미도》의 핵입니다, 조국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라나 고향이 아니라 사람들의 참된 삶이 있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담보되는 곳이라야 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주체의 조국관의 핵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비록 나서자라기는 하였지만 참된 삶이 없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나라나 고향은 조국이라고 말할수 없다는 심오한 철학적해명을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은 일군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날 우리 인민은 나서자란 나라나 고향은 있었지만 그것을 침략자들에게 빼앗기고 갖은 민족적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왔다고, 우리 인민이 사람다운 대우를 받으며 참다운 삶과 행복을 누릴수 있게 된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시였기때문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은 수령님이시며 수령님은 곧 조국이라고, 예술영화 《월미도》의 주인공들은 생활체험을 통하여 조국이란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고 조국의 귀중함을 사무치도록 느끼였기때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웠다고 강조하시였다.

조국은 수령님!

수령님은 곧 조국!

이렇듯 숭고한 조국관을 지니신 절세의 애국자이시기에 우리 장군님 1970년대에 이어 1980년대를 평양번영기와 같은 창조와 건설의 장엄한 력사로 찬란히 수놓으시였고 1990년대 피눈물의 해를 보내고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실 때에는 내 나라, 내 조국을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는 뜨거운 심장의 호소로 천만군민을 불러일으켜 조국번영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위대한 승리와 함께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비약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장엄한 현실은 명실공히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조국관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조국관은 곧 수령관이다.

어버이수령님의 념원대로 내 나라, 내 조국을 기어이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건설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오늘의 선군조국은 곧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저 멀리 이국땅에서도 공화국기를 바라보며 조국을 빛내인 영광의 보고를 제일먼저 경애하는 장군님께 드리는것이며 적구에서도 조국의 품, 장군님의 품으로 기어이 돌아오는것 아니랴.

자자손손 백두산장군들의 조국으로 빛날 위대한 조선을 위해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영웅적로동계급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조국관을 체질화한 선군조선의 참된 애국자, 강성대국의 뿌리로 참답게 살려는것이 오늘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본사기자 리성국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당면한 영농전투를 더욱 힘있게 벌리자

실속있는 두벌농사작전, 혁신적인 일본새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은 당의 두벌농사방침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좋은 경험을 창조한 농장이다.

지난해 가을 이 농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두벌농사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올해에도 이 농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앞그루작물수확과 뒤그루작물심기준비에 품을 들여 두벌농사성과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성과의 비결은 무엇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두벌농사는 짧은 기간에 식량문제를 풀수 있는 기본방도의 하나입니다.》

앞그루로 심은 감자포기들에 꽃이 피여난 때였다. 실농군의 짐작으로 포전별 정보당 수확량을 가늠해보며 흐뭇해하던 농장관리위원장은 저도모르게 깊은 사색에 빠지고말았다. 감자를 수확하고 뒤그루작물을 심어야 할 6월 하순의 바쁜 날이 은근히 걱정되였던것이다.

그날 저녁 총화시간에 그는 일군들과 함께 농장의 현실적조건을 놓고 분석해보았다. 그중 이들의 마음에 걸린것이 바로 적기보장문제였다. 그럴만도 하였다. 농장의 경우 모든 밭에서 두벌농사를 하는데다가 올해의 불리한 날씨조건으로 하여 봄철영농공정이 처지였던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적기를 보장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농장일군들은 적기를 보장하기 위한 방도를 놓고 론의를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 예견성있게 두벌농사준비를 빈틈없이 갖춘다면 능히 적기를 보장할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여기에 기초하여 농장일군들은 우선 앞그루작물수확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기 위한 방도를 찾기 시작하였다.

모내기가 한창이던 어느날 이른아침 제1작업반에 나갔던 관리위원장은 작업반초급일군들과 함께 농기구창고를 돌아보았다. 바쁜 농사철에 매 분조의 농기구창고안에 들어가 깐깐히 살펴보는 관리위원장의 속마음을 짐작한 초급일군들은 모내기를 끝내고 중소농기구준비를 와닥닥 해제끼겠다고 하였다.

그러는 초급일군들에게 관리위원장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끄는 식으로 해서는 농사를 그르칠수 있다, 중소농기구준비는 두벌농사의 적기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방도를 함께 찾아보자고 하였다.

이들은 포전에 나가서도 쉴참이면 이 문제를 놓고 론의를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 중소농기구를 만드는데 솜씨가 있는 농장원을 선발하여 그에게 작업과제를 맡기기로 하였다.

그날부터 이 작업반에서는 능력있는 농장원을 선발하여 중소농기구를 잘 만들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니 모내기를 계획대로 내밀면서도 앞그루작물수확에 필요되는 호미와 삼태기를 비롯한 소농기구준비를 잘할수 있었다.

모내기가 결속되여가던 어느날 이 작업반에서는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였다. 이날 농기구창고들을 돌아보며 앞그루작물수확준비를 빈틈없이 하게 된 비결을 알게 된 농장일군들과 작업반초급일군들은 신심에 넘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었다. 그들은 로력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면서 앞그루작물수확을 위한 준비를 힘있게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농기구준비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도록 하였다.

농장일군들이 뒤그루작물심기를 위한 준비에 힘을 넣은것도 잘한 일이다.

사실 뒤그루작물심기는 시간을 다투는 일이다. 만일 준비가 불충분하여 하루만 지체되여도 알곡소출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농장일군들은 작업반들에서 뒤그루작물심기를 적기에 해제끼기 위한 문제를 놓고 사색을 깊이 하였다. 집체적협의를 거듭한 결과 일군들은 제일 품이 많이 드는 소석회와 흙보산비료, 거름을 착실히 준비해놓는것을 중심고리로 정하였다.

그리고 제6작업반을 시범단위로 정하고 일군들이 내려가 잘 도와주도록 하였다. 이 작업반에 나가 농장원들과 어울린 일군들은 소석회와 거름, 흙보산비료를 충분히 내고 뒤그루작물을 심으면 정보당 수확고를 더 높일수 있다고 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갔다.

며칠후 제6작업반의 소식이 전해지자 모든 작업반초급일군들이 앞을 다투어 분발해나섰다. 작업반초급일군들이 로력조직을 보다 면밀하게 짜고드니 뒤그루로 심을 콩모판관리가 과학기술적요구대로 되는것은 물론 소석회와 흙보산비료생산, 거름확보 등 뒤그루작물을 심기 위한 준비에서도 혁신이 창조되였다.

앞그루작물수확과 뒤그루작물을 심기 위한 준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자 농장일군들은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설친데가 생기지 않도록 제때에 료해하고 대책을 세워주었다. 물거름관수를 위한 탕크와 관을 미리 준비하도록 한것도 이 과정에 있은 일이였다. 그 나날에 농장에서는 앞그루작물수확과 뒤그루작물을 심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게 되였다.

이 농장일군들의 경험은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앞을 내다보며 품을 들여가면서 준비를 잘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창길

농작물가꾸기에 큰 힘을

지금은 농작물가꾸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해야 할 시기이다.

농작물가꾸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잘해야 지금껏 벼모를 내고 강냉이를 비롯한 곡식을 적기에 질적으로 심은것이 큰 은을 나타내게 할수 있다. 김매기와 논물관리, 병해충에 의한 피해방지, 비료치기 등 농작물가꾸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하여야 뜻깊은 올해를 알곡증산으로 빛내일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를 잘 지어야 알곡을 비롯한 여러가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농사를 잘 짓자면 농작물가꾸기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김매기를 잘하여야 한다. 김매기를 잘하여 모든 포전을 알뜰히 가꾸어야 농작물의 성장을 촉진시킬수 있다. 김매기에서 중요한것은 기계김매기비중을 높이는것이다. 포전별, 필지별, 날자별김매기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김매는기계들의 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후치질을 적극 앞세우고 김을 자주 돌려매야 한다.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미리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아무리 김을 잘 매여 논과 밭을 알뜰히 가꾼다 해도 병해충이 발생하면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없다. 농장들에서는 병해충예찰, 예보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농작물의 생육상태와 병해충발생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며 필요한 대책들을 제때에 세워야 한다. 특히 장마철기간에 생겨날수 있는 여러가지 병해충에 대한 예찰예보체계를 철저히 세워 한포기의 곡식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병해충예찰초소들을 기술적요구대로 만들어놓고 기술일군들과 예찰원들의 역할을 높여 병해충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효능높은 여러가지 생물농약을 많이 리용해야 한다.

관수대책을 철저히 세워놓고 논물대기와 밭물주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한다. 양수기, 강우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정비를 잘해놓고 농작물과 포전별특성에 맞게 물을 대주어야 한다. 특히 논물관리공들은 논벼의 생육상태와 날씨조건을 미리 알아보며 논물의 온도와 깊이를 알맞춤하게 보장해야 한다.

비료치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야 한다. 농작물의 생육상태에 맞게 비료치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농작물의 성장을 촉진시켜 알찬 결실을 가져올수 있다. 농작물의 품종과 특성, 생육상태를 보아가며 비료치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한다.

농작물가꾸기에서 성과를 이룩하자면 일군들이 높은 책임성을 안고 구체적인 계획밑에 기술적지도를 실속있게 해야 한다. 농업부문의 모든 일군들은 늘 포전에 나가 당면한 농작물가꾸기를 잘하도록 농장원들을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

농촌의 모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농사를 잘 지어 당창건 65돐을 알곡생산성과로 빛내일 한마음안고 농작물가꾸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실속있게 해야 한다.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논벼비배관리를 잘해나가고있다.
—락랑구역 송남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옳은 방도를 찾고 대중을 발동하여

은률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얼마전 은률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앞마당에는 여느때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경영위원회일군들과 군안의 협동농장관리위원장들의 얼굴마다에는 하나같이 기쁨이 어려있었다. 지난 시기보다 앞당겨 밀, 보리탈곡기를 비롯한 농기계수리정비를 끝냈던것이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매사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일하는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난 어느날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일군들이 참가한 협의회에서는 앞그루작물가을걷이준비를 앞당겨 끝낼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였다. 일부 일군들은 너무 이르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감추지 않았다. 당면한 영농전투로 하여 시간과 로력이 부족하였기때문이였다. 그때 경영위원회책임일군은 일군들로 하여금 지난 시기의 일을 더듬어보게 하였다.

지난해 군안의 일부 농장들에서는 모내기가 한창인 때에 밀, 보리탈곡기를 비롯한 농기계수리정비를 시작하였었다. 바쁜 농사철이다보니 이 사업에 큰 품을 들일수 없었고 결국 준비사업을 앞그루작물가을걷이가 박두해서야 끝낼수 있었던것이다. 지난해사업은 앞그루작물가을걷이준비를 앞세워야 뒤그루작물심기에서도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협의회에서 지난해 사업을 돌이켜본 경영위원회일군들은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가는 곳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이 타올랐다. 농장원들은 당면한 영농작업을 하면서 밀, 보리탈곡기와 뜨락또르수리정비, 소농기구준비도 하나하나 착실히 해나갔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들끓는 군안의 여러곳을 돌아보던 일군들은 밀, 보리탈곡기를 비롯한 농기계들을 수리하고있는 어느 한 농장을 찾게 되였다. 농장원들이 며칠째 애써 노력하고있었지만 부속품이 걸려 농기계수리를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있는것이였다. 다른 농장들을 돌아보아도 실태는 마찬가지였다. 농기계부속품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그루작물가을걷이준비사업을 일정계획대로 내밀수 없었다.

일군들의 관심은 군농기계작업소에 모아졌다. 그들은 곧 군농기계작업소에 내려가 실태를 알아보고 생산자들과 마주앉아 제기되는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그 과정에 현존설비를 수리정비하여 능력을 높이면 얼마든지 자체의 힘으로 필요한 부속품들을 보장할수 있다는 혁신적인 안이 나왔다. 일군들은 설비수리전투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였다.

일군들은 실태를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주는것으로 자기 사업을 대치하지 않고 현실에 몸을 잠그고 대중을 이끌어나갔다.

전투장에서는 밤에도 불이 꺼질줄 몰랐고 기계들의 동음이 멎지 않았다. 그리하여 소재생산설비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투는 짧은 기간에 끝나게 되였다. 여기서 신심을 얻은 종업원들은 련이어 다른 설비들에 대한 수리정비도 끝냄으로써 생산의 동음을 더욱 세차게 울렸다. 군자체의 힘으로 적지 않은 농기계부속품들이 해결되자 앞그루작물가을걷이준비사업은 더욱 힘있게 추진되였다.

경영위원회에서는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모든 준비사업을 질적으로 하도록 대중을 적극 발동하였다.

그 결실은 좋았다. 군적으로 농기계수리정비를 앞당겨 끝냈던것이다. 새것처럼 수리정비된 농기계들앞에서 기쁨에 넘쳐있는 농장원들을 보며 경영위원회일군들은 옳은 방도를 찾아쥐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깊이 새기였다.

본사기자 윤용호

뒤그루농사준비를 빈틈없이

개성시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뒤그루농사준비를 잘하고있다. 시에서는 뒤그루농사에 필요한 관개용수보장에 힘을 넣어 물공급체계를 세워놓고 질좋은 거름도 많이 생산하여 포전에 실어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두벌농사를 실속있게 하여 그 효과성을 충분히 나타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에서는 농장들에서 뒤그루작물심기를 짧은 기간에 해제끼기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치도록 하였다.

시일군들이 뒤그루포전에 대한 관수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틀어쥐고 내밀었다. 시안의 농장들에 내려간 일군들은 두벌농사포전들을 밟아보며 물공급정형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았다. 그리고 그 어떤 조건에서도 물을 원만히 공급할수 있는 자연흐름식물길에 의한 관수체계를 완비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속에 발관수가 가지는 중요성을 해설해주면서 그들모두가 공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불러일으키였다.

여러 개소에 보막이를 하고 자연흐름식물길을 내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당의 두벌농사방침 관철에서 앞장설 불같은 열정을 안고 많은 공사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하여 관수체계를 세워놓음으로써 뒤그루농사의 좋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뒤그루포전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거름실어내기가 시안의 협동농장들에서 경쟁적으로 벌어지고있다. 농장들에서 각종 운반수단들을 적극 리용하여 진거름과 도시거름을 포전에 실어내기 위한 투쟁을 경쟁적으로 벌려 실적을 올리고있다.

농장원들은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시대적책임감을 간직하고 거름실어내기에 열정을 바치고있다. 이들은 뜨락또르들에 대한 점검체계를 철저히 세워 만가동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고있다. 부림소관리공들도 이에 뒤질세라 많은 거름을 실어내고있다.

협동농장일군들은 농장원들의 드높은 열의에 맞게 조직사업을 더욱 빈틈없이 하고있다.

두벌농사면적이 가장 많은 단위의 하나인 룡산협동농장에서는 작업반초급일군들이 포전별, 필지별거름실어내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로력조직을 짜고들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해선, 풍덕협동농장에서는 영농자재와 물보장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우면서 거름운반에 힘을 넣고있다.

본사기자 정영철

주인된 자각안고

안변군 비산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주인된 자각안고 두벌농사준비를 깐지게 하고있다.

지난 기간 영농실천을 통하여 질좋은 거름을 내는것만큼 알곡소출이 높아진다는것을 깊이 체험한 농장일군들은 뒤그루농사포전들에 질좋은 흙보산비료와 유기질비료를 더 많이 내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쳤다. 사실 올해는 불리한 날씨조건으로 하여 유기질비료생산과 실어내기를 비롯한 뒤그루농사준비를 모내기때부터 하여야 하였다.

농장일군들은 이런 조건에 맞게 그 준비를 앞질러가며 하나하나 모가 나게 해나갔다. 우선 뒤그루농사에 필요한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는데 품을 들이였다. 일군들은 비생산단위와 작업반들의 비육분조성원들이 여가시간을 리용하여 뒤그루포전들에 낼 거름더미들을 뒤집어놓으면서 잘 썩이도록 하였다. 앞그루농사와 뒤그루농사에서 옹근소출을 내자면 부침땅의 지력을 높여야 한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농장원들은 집짐승우리에서 북데기를 밟혀내여 퇴적장에 쌓았다.

농장에서는 유기질비료를 앞그루작물을 가을하기 전에 포전에 실어내기 위한 사업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농장일군들은 부림소들을 리용하여 흙보산비료와 유기질비료를 실어내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웠다. 이와 함께 뒤그루농사포전들에 실어낸 거름량을 필지별로 따져보며 유기질비료와 흙보산비료를 계획대로 내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농장에서는 뒤그루작물을 심을 포전들에도 정보당 20t이상의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당창건 65돐을 알곡생산성과로 빛내일 한마음 안고 떨쳐나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한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뒤그루농사에 필요한 중소농기구준비도 빈틈없이 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순홍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을!
—개천탄광에서— 본사기자 장청일 찍음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풍직물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천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대고조의 불길드높이 5월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이들은 적들의 반공화국대결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멸적의 기상안고 이달에 들어와서도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천생산을 늘이기 위한 방도의 하나를 설비가동률을 높이는데서 찾고 설비부속품들과 기료품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생산의 첫 공정을 맡은 준비작업반원들이 계획수행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고있다. 작업반장 안영실동무를 비롯한 작업반원들은 권사기, 위권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운전을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하면서 매일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직포2작업반과 직포5, 6작업반의 로동자들이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질좋은 천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숨은 노력을 바쳐가고있는 이들은 한m의 천을 짜도 정성을 쏟아붓고 앞선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질을 높이고있다.

당창건 65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는 이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대진군의 발구름소리를 기세차게 울려가고있다.

본사기자

작전도 좋고 방법론도 좋다

와우도구역당위원회 일군들

와우도구역이 올해 영농사업에서 실적을 올리고있다.

이것은 구역당위원회가 작전을 잘하고 방법론있게 사업을 전개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그러면 이곳 구역당위원회의 영농전투작전과 그 실현을 위한 방법론에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성과의 예비는 조직사업에 있고 힘은 군중에게 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구역당위원회는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년초부터 농업부문에 당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였다.

구역당위원회사업에서 좋은 점은 우선 전투작전부터 잘한것이다.

모든 사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기본요인의 하나는 작전이다.

구역당위원회의 올해영농전투와 관련한 작전을 보기로 하자.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올해공동사설과 공동구호에서 제시된 과업 관철을 위한 전투목표를 높이 세운데 기초하여 그 수행을 위한 작전을 통이 크고 구체적으로 세웠다.

작전에서 특징적인것은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이는것과 함께 기관, 기업소, 가두인민반을 비롯한 구역안의 모든 력량이 농업전선에 총집중, 총동원되도록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한것이다. 또한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단계별전투작전을 치밀하게 짜고든것이다.

이번 모내기전투작전만을 놓고보아도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선전선동력량편성, 농장별, 필지별에 따르는 농장로력과 지원로력배치, 뜨락또르, 모내는기계를 비롯한 농기계배치, 부림소배치, 모내기와 관련한 과학기술지식보급, 책임일군들의 농장담당제, 일군들의 위치와 역할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세웠다는것을 알수 있다.

작전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구역적인 작전적의도에 따라 아래의 모든 단위들이 자기 실정에 맞게 모내기전투작전을 구체적으로 세부화한것이다.

한마디로 평한다면 통이 크고 빈틈없는 매우 혁신적이며 현실성있는 작전이다.

구역당위원회사업에서 좋은 점은 다음으로 작전을 실현하는 전과정에 옳은 방법론을 적용한것이다.

옳은 방법론은 승리의 지름길을 여는 기본열쇠이다.

올해 모내기전투작전을 실현하는 과정을 놓고보기로 하자.

구역당위원회에서는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와닥닥 끝내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내밀었다.

여기에서 구역당위원회가 중심고리로 틀어쥔것은 뜨락또르운전수, 모내는기계운전공, 모판관리공, 부림소관리공을 비롯한 중요영농작업을 맡은 사람들과의 사업과 기술자들과의 사업이였다.

모내기가 시작되여 며칠 지난 어느날 화도협동농장에 나갔던 책임비서 홍순길동무는 모내기실적이 처지고있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의견도 듣고 매 작업공정들의 시간당 실적도 타산해보던 책임비서는 결정적으로 뜨락또르와 부림소의 가동률에 문제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논갈이와 써레치기가 앞서는가 처지는가에 따라 모내기실적이 오르내렸던것이다.

다른 농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되여 중심고리가 선정되게 되였던것이다.

책임비서는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구역당집행위원들과 해당 부문일군들의 협의회를 열고 구체적인 분공조직사업을 하였다.

구역안의 당, 행정, 근로단체일군들이 이 사업에 떨쳐나섰다.

중요영농작업을 맡은 사람들과의 사업을 감정과의 사업으로 전환시켰다.

책임비서가 실천적모범을 보이였다. 그는 대대협동농장 농산제2작업반에 나가 운전수들과 뜨락또르를 함께 타기도 하고 쉴참에는 가정에서 성의껏 마련해온 음식도 함께 들면서 그들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이런 감정과의 사업은 백마디를 대신한 정치사업이였다. 뜨락또르운전수들은 비상한 각오를 안고 분발해나섰다. 그들의 정신력이 분출되니 논갈이와 써레치기실적은 두배로 껑충 뛰여올랐다.

여러날째 뜨락또르운전수들과 함께 벌에서 살다싶이 하는 책임비서의 헌신적인 투쟁기풍은 구역안의 일군들을 불러일으켰다.

책임일군들인 곽만석, 정철남동무를 비롯한 30여명의 구역당일군들과 가족들, 인민위원회, 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인민보안서, 청년동맹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70여명의 구역일군들이 성의껏 마련한 후방물자들을 안고 농장들에 달려나가 운전수들과 함께 뜨락또르를 타고 그들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이와 함께 부림소관리공들과의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렸다.

여기에서 주목되는것은 그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면서 부림소들의 영양관리를 함께 책임지는 립장에서 온갖 성의를 다한것이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매주 수요일을 《부림소영양관리의 날》로 정하고 이날에 호박곰을 비롯한 영양가높은 먹이를 만들어 먹이도록 하였다.

여기서도 책임일군들이 모범이 되였다.

어느날 대대협동농장 농산제7작업반에 나가 부림소관리정형을 알아보던 구역당책임일군은 한 농장원으로부터 부림소영양에 특효가 있는 새로운 속성영양탕에 대한 말을 듣게 되였다. 구역당책임일군은 즉시 일군들의 협의회를 열고 새로운 속성영양탕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 다음 구역적으로 영양이 약한 수십마리의 부림소들을 한마리씩 맡도록 분공조직사업을 하였다.

일군들은 부림소관리에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부림소관리공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그들은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새롭게 자각하며 분발해나섰다. 이렇게 되여 모내기전투에서 부림소들의 가동률을 훨씬 높일수 있게 되였다.

구역당위원회가 중요영농작업을 맡은 농장원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그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린 사실들을 다 전하자면 끝이 없다.

이렇듯 그들과의 사업을 감정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이번 모내기전투에서 그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게 되였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기술자들과의 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일부 일군들이 부족되는 연유를 비롯한 영농자재를 놓고 우만 쳐다보고있을 때 구역당위원회는 그 방도를 기술혁신에서 찾았다.

이번에 농업성적으로 높이 평가된 살통식갈이동시써레기를 만들어낸 한 기술자를 도와준 이야기는 좋은 실례로 된다.

언제인가 구역당책임일군은 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장 리히영동무로부터 화도리에 재간둥이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였다. 화도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 반장 조성전동무가 새로운 농기계를 만들고있다는것이였다.

듣고보니 기발한 착상이였다.

구역당책임일군은 그 소중한 싹이 훌륭한 열매로 무르익도록 적극 도와나섰다. 조성전동무를 책임자로 하는 강력한 기술력량도 무어주고 여러차례 현장기술협의회도 조직하였으며 필요한 자재와 부속품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었다. 실패를 거듭할 때마다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그의 생활도 따뜻이 보살펴주었다. 협동농장경영위원장과 리당비서를 비롯한 구역과 리의 일군들이 한 기술자를 위해 바친 진정도 뜨겁다.

이런 뜨거운 마음들이 합쳐져 드디여 새로운 농기계가 태여나게 되였다. 그 이름도 처음인 살통식갈이동시써레기는 논갈이와 써레를 동시에 하면서도 기계적마모가 적고 중요하게는 많은 연유를 절약하게 하는 국가적으로 의의가 대단히 큰 창조물이였다.

얼마전 농업성적으로 이 농기계에 대한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였는데 참가자들모두가 우리식의 새로운 영농기계의 위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구역당위원회의 방법론적인 사업기풍은 목화농사에 력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목화농사는 품이 많이 드는것으로 하여 거기에 드는 로력문제가 제일 애로로 되고있었다.

이 문제를 구역당위원회가 잘 풀었다.

—목화농사를 온 구역이 달라붙어 짓자!

구역당위원회는 경영위원회일군들과 함께 목화농사의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로력을 잘 타산한데 기초하여 이를 녀맹돌격대운동으로 해제끼기로 하였다.

리정남동무를 비롯한 구역책임일군들은 신령공예전문협동농장을 담당하고 녀맹돌격대원들과 함께 목화농사를 잘 도와주었다.

대중운동의 위력은 훌륭한 목화작황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이곳 구역당위원회가 올해의 영농전투에서 거둔 눈부신 성과는 작전과 방법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강조해주고있다.

그렇다. 작전과 방법론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이다.

본사기자 김영철

서사시

인 민 은 6 월 을 노 래 한 다

김 만 영

1

6월이 왔다
산천도 푸르러 설레이는 이 강산에
우리의 김정일동지
젊으신 그 모습 빛나는
뜻깊은 6월이 왔다

기쁨과 환희에 넘쳐
못잊을 그날을 생각하며
붉은기 날리는 당중앙청사
그 밝은 창가를 우러르는 인민의 마음
끝없는 행복에 젖나니

경사로와라
인민의 념원을 한가슴에 안으시고
우리 장군님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력사의 6월 19일이여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명절이여

뵙고싶구나
두툼한 서류가방을 옆에 끼시고
룡남산의 맹세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활달하신 걸음으로
당중앙위원회에 들어서시던 그이

그이 걸어오신 수십성상 헤아려보니
눈앞에 어려오는 그이 모습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시는 어버이모습
오직 그 한모습밖에 없구나

그래서였던가 6월이여 조국이여
내 오늘 너와 하많은 이야기 나누고싶은 것은
나라의 크고작은 그 모든 일에
그이의 깊은 사색과 현명한 손길
뜨거운 헌신과 왕성한 정력이 깃들어있거니

생각하면 가슴뜨겁구나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거창한 사업으로부터
이 나라 한끝 이름없는 산골
마지막집의 살림형편에 이르기까지
다 헤아려보시는 우리 장군님

전선길에 들리신
발전소 새 마을
스스럼없이 토방에 앉으시여
군대나간 아들의 편지와 사진도
기쁨에 넘쳐 보아주시는 어버이

상점에 들리시여
새로 들어온 비옷의 색갈
처녀들 신발의 무게
아이들 책가방의 모양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거니

인민이 살고
인민이 일하는
집집마다 일터마다
방문의 손잡이와 수도꼭지
문패며 창문…
그 어디에나 그이의 사랑
그이의 숨결이 깃들어있어라

깃들어있어라
최고사령부 작전지도에
화살표를 그어가시던 붉은 연필로
친히 짜주신 아이들의 야영일과에
초소와 건설장에서 보아주시던
병사들의 소묘와 건설자들의 작품집에

그이에겐 인민을 떠난 생활이 없었다
생활이 그대로 일이고
일이 그대로 생활이기에
비내리고 눈내리는 궂은날
높은 산 험한 령 파도높은 바다가
그이 헤쳐오신 길이였다

그 길엔 새겨져있구나
안전등으로 밝히시며
지하막장을 걸어가시던 그 모습이
석수떨어지는 발전소 물길굴에
오래도록 서계시던 숭엄한 그 모습이

그 모습을 우러르는
우리의 가슴엔 뜨겁게 울려와라
하루밤에 천리를 달려가시는 그 어느 평길에서
일군들에게 뜨겁게 하신 말씀

—나무가 거목으로 자라자면
뿌리가 든든해야 합니다
동무들도 나도
조국과 혁명을 떠받드는
억센 뿌리가 됩시다!

오, 그것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것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간직하신
우리 장군님의 열렬한 헌신의 세계!

그 세계에는
낮도 밤도
계절도 따로 없었다
명절날도 일요일도 따로 없었다

그 세계엔 다만
인민을 위해 아낌없이 바치신
후더운 헌신의 땀방울만이
보석처럼 빛나며 가득차있나니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열렬한 그 세계
인민을 위한 고생이라면
사서라도 기꺼이 하겠다시며
온 넋을 불태우시는
우리 장군님의 인생관!

그것이
인민의 만복을 꽃피우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떠받드는
인민행복의 뿌리가 되였나니

그 뿌리에서
혁명의 장장 수십성상
인민이 억세게 자라나고
조국번영의 전성기가 펼쳐졌어라

인민의 기쁨을 마련하고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 길에서
순간의 만족도 한계도 모르시는
우리 장군님

손에 일감이 무거워야
오히려 마음 가벼워하시는분
일이 바쁘고 할 일이 많을수록
자신은 일복을 타고났다고
오히려 기뻐하시는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전선길에서
줴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시면서도
희귀한 철갑상어며 자라를 옥류관에 보내주시고
그 료리들을 마주한 인민들의 모습
사진으로 보고 또 보시며
쌓인 피로가 다 풀린다고 하셨거니

열렬한 사랑을 안고
김철의 구내길과 미곡의 농장길
삼지연과 대홍단과 어랑천발전소건설장…
나라의 북방과 동서를 쉬임없이 주름잡으시며
커가는 인민의 행복에서
혁명의 보람을 찾으시고
투쟁의 희열을 한껏 느끼시는분

그 보람과 희열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만대에 이어놓으시던
삼지연의 그 새벽길에도 어리여있고
영화혁명과 가극혁명
문예부흥의 불길을 지펴주시던
삼석의 언덕길
대극장의 새벽 창가에도 비껴흘렀다

이 땅이 비좁도록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
로동당세월의 년대와 년대들
그 어느날 그 어느 순간을 짚어보아도
장군님의 거룩한 령도의 손길 새겨져있거니

세상을 놀래우며 최첨단을 돌파한
내 조국의 존엄과 긍지
그 모든 성공
그 모든 기적과 변혁은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에서 태여났어라

시련의 나날
풍랑을 한몸으로 막으시며
CNC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우리 장군님
그 CNC에서
최첨단경지에 올라선 조국의 거창한 숨결
인민의 행복한 웃음소리 들으시며
조용히
뜨거운 눈물을 흘리신적은 그 얼마이던가

그 눈물은
수령님의 념원을 꽃피워드린 기쁨과 환희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였다
한평생 마음속에 타끓는
헌신의 정화였다

하기에 그 눈물처럼
깨끗하고 열렬하고 뜨거운것
세상에 없어라
그 눈물처럼
고귀하고 숭고한것 세상에 없어라

무한한 그 사랑을 지니시고
어머니 우리 당의 숨결
천만가슴들에 부어주시며
6월의 걸음으로
인민복무의 성스러운 길을 이어오신
우리 장군님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이 땅에 쉬임없이 찍어가신
그이의 자욱자욱은
우리 혁명의 장엄한 모습이 되였다
우리 당의 눈부신 존엄과 위용이 되였다

아, 우리 어버이 김정일동지
그이의 한평생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영원불멸할 헌신의 한평생
위대한 뿌리의 한평생이여라

2

하늘도 푸르고
산천도 푸르러
이 마음도 푸르러 설레는 6월의 명절
생각도 깊어져라
존엄높은 내 조국의 모습을 두고

혁명의 참모부에 첫 자욱 새기신 그 나날에
당중앙정문과 전선길을 하나로 이으신 장군님
우리 당을 김일성동지의 당
선군의 당으로 빛내이시며
당의 선군령도를
조국수호의 제일혁명으로 추켜드셨거니

백두에서 개척한
수령님의 위업을 이어나가시며
선군장검을 높이 드신
강철의 령장 김정일장군
그이는 우리 운명의 어버이가 되시였어라
그이는 조국수호의 뿌리가 되시였어라

비바람 설한풍속에서
천만아지를 보호해주며
제국주의 모진 광풍을 한몸으로 막아
조국과 인민을 지켜오신 우리 장군님

잊을수 없어라
한해에도 그 몇번
철령을 넘고 넘으시며
끝없이 가고 가신 선군혁명천만리길

그이의 걸음을 따라
우리 당중앙위원회는
반제성전으로 불이 흐르는 전선에 있었다
그이의 집무실은 야전지휘소
그이의 집은 달리는 야전차

그 야전차는
인민의 운명을 품어안은
조국수호의 야전차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빨찌산전법으로 종횡무진하며
제국주의《봉쇄》와 《제재》를 짓부셔버리는
백전백승의 야전차

그 야전차의 차창에는 비껴있구나
맞대인 총구와 총구에 흐르는 준엄한 분과 초
다치면 터질듯한 일촉즉발의 순간으로
공기마저 얼어드는 최전연의 고지
위험천만한 오성산에 오르신
최고사령관의 거룩한 영상이

손에 땀을 쥔 지휘관들과 병사들
장군님앞을 에워싸며
두팔벌려 안타까이 막아나설 때
결연히 하시던 장군님의 그 말씀

—내가 이런것을 두려워했다면
선군길을 한걸음도 내딛지 못했을것이요
조국수호는
목숨을 내대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성전이요!

순간,
야전지휘소 전호가에 작전도를 펼치고
적진을 일별하시는 그이의 안광에선
멸적의 불이 뿜어져나왔다
조국을 책임지신 그이의 심장엔
백두산의 용암이 사품쳐 끓고있었다
백두산의 폭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었다

아,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지켜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억척같이 받들고있는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며
우리는
조국수호의 위대한 뿌리를 생각했나니

선군의 그 길 한치한치에
자신의 심장
신념과 의지
한평생을 다 놓으신 우리 장군님

하기에
환희가 넘치던 어느해 명절날
백발의 해외동포 눈물을 흘리며
어버이장군님께 올리던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슴 세차게 두드리거니

—장군님!
조국에 와보니 정말 눈물이 납니다
내 나라를 이렇게 강성하게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예로부터 진짜 영웅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장군님은 조국을 두번다시 구원한
만고희세의 영웅이십니다

이 백발로인이 허리굽혀 빕니다
장군님께서 건강을 돌보심은
백의동포가 활개치며 살아가는 길이고
민족만대가 흥하는 길입니다
민족의 구세주, 장군님! 장군님!

몸소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시여
로인의 진정어린 눈물을 닦아주시며
뜨거이 하시는 말씀
—이러지 마십시오 로인님!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뿐입니다
나는 인민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제집을 지키고
제 식솔들을 지키는거야 응당한것 아닙니까

사람들이여, 우리 쉽게 부르지 말자
조국수호란 그 말을
선군의 그 길에
어떤 준엄한 시간들이 흘렀는가를
다 알기전에는

그이의 일과는
용감무쌍한 사생결단의 의지로
원쑤들의 준동을 한손에 거머쥐고
쥐락펴락하시며
붉은기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를 지켜가시는
선군혁명일과

그 일과속에
제국주의 군수복합체들을 발밑에 눌러딛고
우리의 자위적국방공업이
굳건히 다져졌나니

주체철 쇠물빛노을이
하늘가를 물들이고
우리의 CNC기술이
세계의 최첨단을 돌파하였다

우리의 비날론과 우리의 비료가
폭포처럼 쏟아지며 나라의 대경사를 안아왔다
제국주의의 끈질긴 《제재》속에서도
핵융합성공으로 인류의 경탄을 불러왔다
나라의 국력이 최경지에 올라섰다

세인을 놀래우며
우리의 우주발사장에서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우뢰치며 뢰성치며 날아올랐다

만약 그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려
이 땅의 풀 한포기 나무잎 하나
푸른 하늘 한조각 공기 한줄기라도 다친다면
백두령장의 통솔을 받는
하늘과 땅 바다에서
어떤 불벼락이 내려질지 누구도 모른다

그이 계시여
산천에는 꽃들이 만발하고
전야에는 곡식들이 푸르싱싱히 자란다
학교에선 아이들의 랑랑한 글소리 울리고
궁전들과 극장들의 화려한 무대에서는
아름다운 노래와 춤이 펼쳐지고
행복과 랑만의 웃음소리 넘쳐난다

그렇더라
그이 계시여
기쁨과 행복은 우리의것
안정과 평화는 우리의것
사회주의 이 제도는 우리의것
승리, 승리는 영원히 우리의것

시일야방성대곡 구슬프던
약소민족의 설음을 영영 가셔내고
민족수호의 력사적위업을 더욱 빛내이신
만고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

아, 그이의 한평생은
휘몰아치는 광풍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후손만대의 부강번영을 받들어올린
조국수호의 뿌리의 한평생
자애로운 어버이
위대한 령장의 한평생이여라

3

6월이여
높푸른 너의 하늘아래에는
화창히도 펼쳐져있구나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으로 꽃펴난
일심단결의 아름다운 화원이

행복하여라
내 마음도 이 화원에
한송이의 꽃으로 피여있구나
내 숨결도 이 화원에
한줄기의 향기로 넘치누나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으랴
장군님은 인민을 그리워하고
인민은 장군님을 그리워하는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이
혼연의 세계로 펼쳐진 일심의 화원이여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춘하추동 사시절
이 화원에 따사로운 해빛을 뿌려주시고
믿음과 사랑의 자양분을 주신 장군님

년대와 세기를 넘어
이 화원을 가꾸시며
병사들과 인민들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걷고걸으신 6월의 그 걸음은
세월이 흘러가도 변함이 없구나
세월과 함께 더욱 정력에 넘치누나

사람들은 모르리
다는 모르리
봄빛이 흐르는 5월
조중친선의 거룩한 자욱 찍으신 그이

자정도 넘은 깊은 밤
조국을 떠난지 며칠 안되는데
오래된것만 같다고
병사들과 인민들을 그리워하시며
창너머 조국의 하늘을 바라보시는 그이

이 세상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병사들과 인민들을 보고싶어하는
그 마음일거라고 절절히 말씀하셨거니

아, 동북산야 8,000여리에 쌓이신
그 피로도 푸실사이 없이
압록강을 건느신 그 길로
찾고 찾으신 초소와 고지
공장과 농촌과 발전소건설장…

인민에 대한 그리움
그것은 그이의 숨결이였다
위대한 심장의 박동이였다
일을 해도 일을 해도 진할줄 모르는
무한한 정력의 원천이였다

어버이 그 마음
병사들을 찾아가는 길 천리라 해도
그이에겐 지척이고
인민들을 하루만 못만나도
백날천날로 길어만 보이거니

중국방문의 먼길에서 돌아오신지
이제는 한달도 다 되였건만
조국땅 방방곡곡을 찾으시느라
평양의 집에도 들리지 못하신 장군님
얼마나 뜨거운 말씀을 하셨던가

—나라고 왜 집에 들리고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압록강을 건너온 그길로
이렇게 계속 여러곳을 찾아가는것은
조국을 떠나있은 5일낮 4일밤에
우리 인민이 보고싶었던 소원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듣는가 하늘이여 땅이여
너 들었다면
인민을 떠나서는
기쁨도 생활도 없고
하늘도 땅도 없는
우리 장군님의 그리움의 철학
조국청사에 아로새기라

장군님의 그 철학 우리 생활이 되고
생명이 된 바로 그것이
우리의 넋
우리의 정신력
우리의 일심단결이거니

그 일심단결의 화원에서
나라의 주인이 된 인민들
꿈과 희망 꽃피우며
빛나는 삶을 누려가는 아름다운 노래
이 땅에 끝없이 울려퍼져라

그이의 넋을 자양분으로 받아
평범한 사람들 영웅으로 박사로
삶을 빛내이는 로동당시대여
세계무대에 당당히 나서
애국자대군, 인재대군의 위력을
만방에 떨치는 내 조국이여

한점 그늘이 질세라
한가닥 근심이 비낄세라
인민의 마음을 뜨겁게 쓰다듬어주시는
우리 장군님의 따뜻한 그 손길

눈보라 사납던 그날
북방의 어느 공장로동자들
장군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을 때
그 누구도 몰랐어라
영광의 그 자리가 어떻게 마련된것인지

장군님을 모시고싶어하는
로동자들의 간절한 그 마음 헤아리시고
눈보라 천리길을 되돌아오신 그 사연에
후더워진 가슴과 가슴들
멀리 야전차를 바래우며
뜨거운 격정을 터쳤거니

—장군님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철없이 기뻐만 했습니다
천길만길 깊고 깊으신 그 마음을
우리 언제면 다 헤아릴수 있겠습니까

정녕 인민을 위한 장군님 마음엔
멀고 험한 길이 없어라
인민을 생각하는 장군님 마음속엔
춘하추동이 없어라

하기에
장군님을 받드는 인민의 마음
하늘처럼 변함이 없고
세월과 세월을 넘어
끝없이 이어지고 이어지나니

신포향과 태성할머니의 그 진정
구봉령할머니와 무재봉의 영웅들…
그 아름답고 숭고한 넋이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속에 불타고있어라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살며 투쟁한다는 남다른 자부심
그것으로 하여
우리의 생활 그리도 보람차고
우리의 삶은 그리도 빛나고
력사와 후대앞에 그리도 떳떳한것 아니던가

그렇게 살고 투쟁하는 법을
우리는 그 어떤 강의나 책에서 배우지 않았다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역전시키는 법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는 법을
장군님과 함께 시련과 고난을 겪으며
사회주의수호전의 폭풍속에서 배웠다

희세의 령도자를
자애로운 어버이
현명한 스승으로 모시고
신심드높이 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
그 힘찬 진군을 멈춰세울 힘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거니

우리는 언제나 일편단심
우리의 어버이 김정일장군
그이만을 믿고
그이만을 따른다

불꽃튀는 김철의 구내길에서
천리마대진군에로 불러주시는
장군님의 그 높은 뜻을 따른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온 나라를 총공격에로 이끌어주시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손길을 따른다

그이께 운명을 다 맡기고
당의 령도를 생명으로 삼으며
장군님을 따라
향도의 당을 따라
선군혁명천만리를 가고 또 갈
우리의 신념과 의지
6월의 하늘가에 붉게 타오르거니

신심은 넘친다
용기는 백배하다
이 땅에 튼튼히 발붙이고
우리의 눈은 세계를 내다본다
비약하고 또 비약하는 우리의 가슴은
우주를 안고 쿵쿵— 세기를 내짚는다

최첨단
대진군
대비약
이것은 장군님을 따라 나가는
우리 심장의 고동소리!

반세기전 그날
당중앙뜨락에 처음 울린 그 발자국 소리는
년대와 년대를 떠밀며
오늘도 하늘땅을 꽉 채우고
혁명의 북소리
강성대국행진곡으로 높이 울려라

감사를 드리노라
온 나라를
수령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고
우리 당에
백두의 넋을 심어준 6월이여

영광을 드리노라
당과 인민의 혼연일체를 이룩하고
세계의 한복판에 인민의 나라
우리 식 사회주의를 찬란히 빛내준 6월이여

어머니 우리 당을 이끄시며
혁명의 수십성상
그이 하신 일을 다 쌓아놓으면
천만산악이 되리
그 하나하나를 다 세여보려면
천년도 모자라리
만년도 모자라리

누리에 떨치라 나의 조국이여
네 한몸에 지닌 오늘의 그 영광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향도의 당을 따라 나가는 조선의 행운
하늘땅 끝까지 떨쳐가라

우리 당을 세련되고 로숙한
백전백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10월의 광장에로 우리를 불러주며
오늘도 6월의 걸음으로 조국을 이끌어가시는
우리의 령도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일동지!

그 모습은
우리 당의 위대한 창건자이신
어버이수령님 모습
정녕 그 모습은
이 나라 천만아들딸들 품에 안아
참된 삶을 꽃피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모습

우러르고 우러러볼수록
인민위해 헌신하시는 장군님의 한평생은
애국애민의 뿌리
조국수호의 뿌리
일심단결의 뿌리

온 나라 강산에
격정과 환희의 꽃물결이 끝없이 흐르는
뜻깊은 명절의 이 아침
인민은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성스러운 6월을 노래하거니

아, 위대한 김일성조선을 세상에 떨치며
불멸의 기치를 세차게 휘날려가는
전도양양한 향도의 당 조선로동당과 함께
이 땅에 후손만대의 만복이 꽃펴나는
무궁한 세월과 함께 6월은 빛나리라
영광스러운 6월은 영원히 빛나리라

6.15통일시대에 역행해나서는자들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 선 중 앙 통 신 사 상 보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북남관계파국의 복잡한 정세속에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을 맞이하고있다.

북과 남이 2000년대의 첫 기슭에서 마련한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와 념원을 최고의 높이에서 구현하고 민족의 전도를 환히 밝혀준 통일의 일대 리정표이고 불멸의 대강이다.

선언의 발표로 삼천리강산은 통일의 열풍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끊어졌던 혈맥과 지맥이 다시 이어졌으며 금강산관광길이 활짝 열리고 개성공업지구가 건설되여 온 겨레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2008년 2월 남조선에 리명박역적패당이 집권하면서부터 북남관계는 걷잡을수 없이 악화되였다.

친미사대, 동족압살에 환장이 되여 집권후 2년남짓한 기간에 북남관계를 결딴낸 리명박패당의 고의적이며 계통적인 반통일책동은 그 무엇으로써도 용납될수 없는 특대형의 민족반역죄악이다.

1

리명박역적패당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북남관계를 극단한 대결관계로 돌려놓은 통일의 원쑤이다.

친미사대주의가 골수에 찬 리명박과 그의 보수패당은 《대북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미국의 대조선압살정책을 그대로 본따고있다.

리명박역도가 《대통령취임식》에서 《대북정책》으로 내놓은 《비핵, 개방, 3 000》은 우리의 핵무장을 해제시키고 우리 제도를 《변화》시켜 무너뜨려야 한다는 미국의 대조선정책에 이름만 바꾸어단 극악한 동족대결, 반공화국압살정책이다.

이에 따라 역적패당은 집권하기 바쁘게 《우리 민족끼리》의 민족자주정신을 진수로 하는 력사적선언들을 헐뜯고 백지화하였다.

취임전인 2008년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선언들에 대해 《원론적》이라고 악의에 차서 비방한 반역도당은 취임후 《우리 민족끼리》를 《배타적민족주의》, 《편협한 민족주의》로, 《안보불안》의 근원으로 모독하였다.

《대북정책》작성을 담당하고있는 《통일연구원》과 《정보원》산하 《안보전략연구소》의 요직에 틀고앉아있는 극우대결분자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대남공작문서》니, 《사상루각》이니 하고 악의에 차서 헐뜯었다.

지어 《통일부》대변인이라는자는 2008년 9월 23일 기자회견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6.15공동선언 제1항에 대해 민족자주로 나가서는 안된다고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이것은 결국 남조선인민들에게서 통일운동의 정신적지주를 빼앗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위한 6.15시대의 거족적전진을 말살해보려는 흉악한 기도의 발로였다.

리명박역도는 미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통일하는것이 최후의 궁극적목표》라고 망발함으로써 《체제대결론》, 《제도통일론》의 흉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반역도당은 이 흉악한 《대북정책》의 실현을 위해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2대기둥으로 한 미국의 대조선압살책동에 돌격대로 나섰다.

역적패당은 그 무슨 《선핵포기》를 북남관계개선의 조건부로 내세우면서 반공화국핵소동에 미쳐 날뛰였다.

지난해 《북핵일괄타결안》이라고 하는 이른바 《그랜드 바긴》을 내들고 핵문제해결에 혼란과 장애만을 조성하고 미국에 애걸하여 우리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확장억제력제공》을 명문화하게 하였으며 올해 4월에는 대조선핵선제타격을 정책화한 상전의 《핵태세검토보고서》를 쌍수를 들어 지지해나섰다.

미국회에서 《북인권법》을 연장하는 내용의 《북인권법재승인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저들나름의 《북인권특별위원회》를 조작하고 《국회》에서 《법》과 《예산》이라는것들을 마구 통과시키였다.

유엔무대에서 미국의 《북인권결의안》조작책동에 《공동제안국》으로 가담하여 악질적으로 놀아댔다.

최근에는 그 누구의 《급변사태》에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인간쓰레기들까지 동원하여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고있다.

역적일당은 《북에 비한 군사적우세》야말로 북의 《선핵포기》와 《개혁, 개방》을 유도할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떠들면서 미국과 함께 반공화국전쟁준비를 발광적으로 다그치고있다.

남조선에서 《주적론》을 부활시키고 《선제타격》을 떠들면서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9》, 《작전계획 5012》와 같은 각종 북침전쟁각본들을 보충완성하고있다.

《키 리졸브》, 《독수리》 등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들의 기간과 규모를 대폭 늘이고 미국, 남조선의 최신군사장비들과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온 남조선땅을 화약내질은 전쟁터로 만들고 반공화국전쟁분위기를 악랄하게 고취하고있다.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걸고들다 못해 남조선괴뢰도당은 지난 시기 력대 어느 《정권》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침략적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과 미싸일방위체계가담까지 결정함으로써 북남관계를 더욱 파국에로 몰아갔다.

2

리명박역적패당은 모략적이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북남대화와 협력사업을 완전중단시키고 북남관계를 결딴낸 민족의 원쑤이다.

그들은 북과 남사이에 당국과 민간급에서 진행되여오던 대화와 접촉들을 파탄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광란적인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대화분위기를 극도로 흐려놓음으로써 1970년대초부터 수십년동안 유지되여온 판문점적십자련락대표부가 페쇄되고 북남사이의 련락수단으로 리용되여오던 직통전화들이 단절되게 만들었다.

북과 남사이에 정례적으로 진행되여오던 6.15공동통일행사들과 북남로동자들의 5.1절공동행사를 비롯한 각계층의 통일회합들을 가로막아 열리지 못하게 하고있다.

리명박역적패당은 이른바 《대북사업 4원칙》이라는것을 내놓고 북남협력사업들을 차단시켰으며 2008년 7월의 《금강산관광객사건》을 구실로 남조선인민들의 금강산관광길을 끊어놓았다.

반역패당은 우리가 북남관계개선과 대화와 협력사업에 관한 적극적인 의지와 결단을 발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개선에 나설수 없고 협력사업도 할수 없다느니, 《만남을 위한 만남》은 없다느니 하면서 부당한 조건부를 내걸어 우리의 긍정적인 제안들을 모두 외면하였으며 민간급에서의 교류와 협력사업마저 다 파탄시켰다.

그후로는 《비상통치계획―부흥》이라는 극히 도발적인 북침전쟁각본을 짜고 그 추진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리명박역도는 2008년 11월 《청와대》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이니, 《통일》이니 하던 그 입으로 2009년 9월 21일 뉴욕에서 가진 외교전문가들과의 협의회에서는 《통일은 어렵다.》고 하면서 지금은 통일을 론할 때가 아니라는 수작을 하였다.

올해 3월 괴뢰군함선침몰사건이 발생하자 반역패당은 그것을 당면한 《지방자치제선거》분위기를 저들에게 유리하게 전환시켜 사면초가의 정치적위기를 모면하고 우리를 국제적으로 고립압살하는데 리용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더우기 그 무슨 《조사단》이라는것을 내세워 사건의 책임을 터무니없이 우리에게 넘겨씌우고 반공화국전면대결을 선포함으로써 북남관계를 최악에 이르게 하였다.

유엔안보리사회에서 미국과 야합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국제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구걸외교를 벌리는 한편 심리모략전재개를 위해 확성기들을 군사분계선일대에 설치하고 조선서해에서 미국과 전례없는 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벌리기로 하는 등 군사적도발도 서슴지 않고있다.

리명박일당은 심히 오판하였다.

온 겨레와 세계는 《북 어뢰공격설》을 내들고 반공화국모략책동에 미쳐날뛰는 리명박패당에게 저주와 규탄을 보내고있다.

이번에 진행된 《지방자치제선거》결과는 대세의 흐름을 거역하고 동족을 배반하는자들에게 남조선인민들이 내린 단호한 철추이다.

력사는 이미 《을사오적》과 같은 민족반역자들인 리명박패당을 《경인역적무리》로 락인하고 사형선고를 하였다.

역적패당의 파멸은 시간문제이다.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이 집대성되고 과학성과 진리성이 담보된 민족최고의 통일강령인 6.15공동선언의 정당성과 불패성은 확정적이다.

리명박반역도당과 같은 력사의 반동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따라 과감히 나아가는 6.15시대의 대진군을 결코 막을수 없으며 조국통일의 민족적숙원은 머지 않아 반드시 실현되고야말것이다.

주체99(2010)년 6월 14일
평 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한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한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이 15일 재령군 삼지강리에서 진행되였다.

리영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관계부문 일군들, 농근맹일군들과 재령군내 농업근로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황해남도농근맹위원장 리봉국,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작업반장 신보은, 은파군 강안협동농장 농장원 량현식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금으로부터 46년전 6월 19일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의 길에 휘황한 미래가 열린 사변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이 뜻깊은 날을 맞으며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당령도사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백두의 천출명장, 희세의 전설적위인을 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근본원칙으로 틀어쥐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심으로써 조선로동당이 명실공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서의 존엄을 높이 떨칠수 있게 하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을 주체혁명위업의 강위력한 령도적정치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혁명의 총대와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의 사상론의 기치높이 천만군민을 정신력의 강자로 키우시여 당의 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에서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을 안아오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독창적인 농업혁명방침을 제시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선군시대 농업발전의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고 농촌건설에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령도사에는 농근맹을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믿음직한 혁명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업적이 빛나고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농근맹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여 조국의 부강번영도 인민의 참다운 삶과 행복도 있다는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장군님을 결사옹위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농근맹조직들과 일군들이 당창건 65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올해에 협동벌마다에서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농업근로자들모두가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게 하는데 기여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열렬한 환영과 절찬을 받는 가극 《홍루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비공식방문으로 중국인민들속에서 우리 인민에 대한 친선의 정이 날로 두터워지고있는 가운데 피바다가극단이 출연하는 가극 《홍루몽》이 중국의 여러 지방에서 현지인민들의 뜨거운 환영과 절찬속에 순회공연을 이어가고있는 소식을 중국신문 《환구시보》 6월 10일부가 소개하였다.

신문은 중국사람들이 가극과 음악극분야에서 실현하지 못했던 《홍루몽》을 조선사람들이 각색하여 중국에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솔직히 말하면 《홍루몽》의 《본가집》인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가극 《홍루몽》을 보기 전까지 주로 의문을 가지거나 관망적인 태도를 가지고있었지만 공연을 본 후에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박수갈채를 보냈다.

조선 피바다가극단의 가극 《홍루몽》은 예술적인 감화력, 《홍루몽》에 대한 존중과 빈틈없는 일본새로 하여 베이징TV방송국 대극원에서 중국공연의 막을 올린 후 후허하오터, 장사, 무한, 복주, 심전 등 도시들을 순회공연하면서 계속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조선판《홍루몽열》이 계속 오르고있는 가운데 피바다가극단은 이어 중경과 서안을 방문하게 된다.

다른 도시들에서도 공연요청이 계속되는 가운데 천진과 장춘에서도 추가공연도시자격을 얻었다.

조선의 《홍루몽》은 중국각지에서 열정의 도가니속에 휩싸여있다.

베이징에서 어느 한 로인은 너무 격동된 나머지 공연을 계속 보기 위해 구심환을 두번이나 먹지 않으면 안되였다.

무한에서는 관중들이 격동된 심정을 누를길 없어 공연휴식시간에 솟구치는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며 공연관계자들의 손을 잡고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중경신보》는 당시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밑에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로병들이 《홍루몽》을 무료로 보게 하려고 준비하고있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공연관람신청전화가 끊어질줄 몰랐다고 하였다.

신문은 조선배우들이 각지를 순회하는 과정에 해당 지역 인민들의 뜨거운 환대를 받고있는데 대하여 전하고 배우들의 혁명적이며 랑만적인 생활기풍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베이징발 본사특파기자 리 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중국 길림성인민정부대표단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15일 진위근부성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길림성인민정부대표단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손님들은 나라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위업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조중친선관계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그이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과 뜌니지인민통일당대표단 회담

조선로동당대표단과 뜌니지인민통일당대표단의 회담이 15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김영일부장, 박근광부부장을 비롯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상대측에서 무함마드 부쉬하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뜌니지인민통일당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자기 당활동정형을 통보하고 두 당사이의 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담은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전국도대항종합체육경기대회 개 막

전국도대항종합체육경기대회가 개막되였다.

대회기간 축구, 롱구, 륙상, 마라손, 탁구, 권투, 력기, 유술, 레스링 등의 경기가 해주, 정주, 혜산시에서 진행된다.

이번 경기대회는 체육선수들이 서로의 기술과 경험을 나누고 나라의 체육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좋은 계기로 될것이다.

개막식이 15일 해주경기장에서 있었다.

오응창 황해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과 체육인들, 시내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개막사에 이어 각 도에서 선발된 선수들이 경기마다에서 완강한 투지와 평시에 련마해온 체육기술,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발휘하여 훌륭한 성과를 이룩할 열의안고 분렬행진을 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황해남도와 평안남도선수들사이의 축구(남자) 경기가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시랑송모임을 통하여 우리 당의 고마움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장철구평양상업대학에서—

최충성 찍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성원들 남조선의 통일인사와 상봉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성원들과 남조선의 통일인사 한상렬목사와의 상봉모임이 15일 평양고려호텔에서 진행되였다.

안경호 북측위원회 위원장은 먼저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평양으로 찾아와 6.15공동선언발표 10돐 기념행사에 참가한 한상렬목사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였다.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발표후 지난 10년간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사업에서 성과들이 이룩된데 언급하였다.

참가자들은 리명박《정권》이 출현한 후 6.15공동선언이 전면부정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투쟁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있다고 하면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따라 내외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거족적인 통일운동을 적극 벌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친선관계일군들

판 문 점 참 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0돐과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발발 60년에 즈음하여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친선관계일군들이 15일 판문점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친필비를 보았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정전담판회의장과 정전협정조인장, 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을 돌아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후쌈 무쉬르 에짚트아랍공화국대사관 문화참사는 감상록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친필과 더불어 가까운 앞날에 조선인민이 반드시 나라를 통일하기 바란다.

김정일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을 이룩하기 바란다.

리경강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참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0돐이 되는 날에 판문점을 참관한것은 의의가 있다.

북과 남사이에 합의한 6.15공동선언은 훌륭한 문건이다.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중국인민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중국인민은 조선인민이 통일된 강토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웬 쑤언 아잉 웰남사회주의공화국대사관 1등서기관은 참관을 통하여 조선인민이 겪고있는 분렬의 고통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웰남인민의 지지와 련대성은 변함이 없을것이다고 말하였다.

손님들은 또한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구축한 콩크리트장벽을 보았다.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도착

황성학 고베조선고급학교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15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지는 고장

덕성과수농장을 찾아서

우리는 얼마전 덕성군 락원리에 자리잡고있는 덕성과수농장을 찾았다.

덕성군 읍을 지나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을 건느니 락원리 소재지마을이 눈앞에 펼쳐졌다.

후치령기슭에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펼쳐져있는 농장의 전경앞에서 우리는 한동안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촌건설에서 혁신을 일으켜 모든 농촌마을들을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고 풍치도 아름다운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꾸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장일군인 박용근동무와 여러곳을 돌아보는 과정에 우리는 농장에 깃들어있는 백두산위인들의 크나큰 은정에 대한 이야기를 가슴뜨겁게 전해듣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농장의 실태를 여러차례 료해하시고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농장에서 과수업을 발전시키며 마을을 잘 꾸려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활짝 꽃피울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해주시였다.

절세의 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제손으로 자기들의 고장을 더 잘 꾸릴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특히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나날 이들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농장의 면모를 일신시키며 과수업발전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눈부신 전변을 안아왔다.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는 연구실, 종합적인 편의봉사망, 유치원과 문화회관, 전기화, 메탄가스화가 실현된 현대적인 농촌문화주택들은 돌아볼수록 멋있었다.

더우기 우리의 감탄을 자아낸것은 새로 일떠선 청년작업반의 합숙과 청년학교,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 문화후생시설과 축산기지였다.

그 하나하나의 건물이 조선기와집으로 규모있게 건설되였는데 설계와 시공에 있어서 내놓고 자랑할만큼 나무랄데가 없었다. 눈앞에 규모있게 펼쳐진 키낮은사과나무밭은 이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혁명적인 일본새를 그대로 보여주고있었다.

농장에서는 몇해전부터 키낮은사과나무밭조성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왔는데 올해 봄까지 수백정보나 조성하였다고 한다.

동행한 일군은 우리에게 지배인 김송숙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방침을 결사관철할 불타는 마음안고 너도나도 밤잠을 잊고 뛰여다니며 키낮은사과나무밭조성과 관리, 과일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농장에서는 자체의 나무모생산기지에서 많은 사과나무모와 배, 복숭아, 추리나무모를 생산하여 모든 과수밭을 청춘과원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고있었다.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농장의 일터와 마을에서는 날마다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높아가고있다고 농장일군은 자랑스럽게 말하는것이였다.

해방전에는 사람 못살 고장으로 소문났었지만 당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훌륭한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전변되여 그 이름도 《락원리》로 바뀌여진 고장, 정말 볼수록 정이 푹 드는 고장, 떠나고싶지 않은 고장이였다.

특파기자 박동석

독자의 편지

어머니라 부르고싶습니다

해방전 막돌처럼 버림받던 저는 고마운 내 조국, 어머니당의 품에 안긴 때로부터 값높은 삶과 크나큰 행복을 꽃피워왔습니다.

오늘은 년로한 저를 혁명가유자녀라고 둥둥 떠받들면서 늘 살뜰히 돌봐주는 사람들속에서 여생을 걱정없이 보내고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군당책임비서동지를 비롯한 군의 일군들입니다.

군의 일군들은 저의 건강상태에 언제나 각별한 관심을 돌리면서 살뜰한 정을 다 부어주고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있은 일은 정말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잊을수 없습니다.

그때 저는 심장병으로 하여 중태에 빠져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군일군들은 만사를 제껴놓고 저의 치료대책을 세워나갔습니다.

저를 어떻게 하나 소생시키기 위하여 군인민병원과 도인민병원뿐아니라 중앙의 이름있는 병원과의 련계도 가지고 후송조직도 세심히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때없이 병원을 찾아 치료상태도 알아보고 귀한 약재도 구해주었습니다. 아마도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는 말이 꼭 맞는것 같습니다.

저는 끝내 소생되였을뿐아니라 6개월간의 치료를 통하여 완쾌될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훌륭한 일군들을 키워준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 우리 당의 품이 너무도 고마와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진정 나를 안아 키워주고 인생의 끝까지 보살펴주는 우리 당을 저는 진정한 어머니라고 온 세상에 목청껏 자랑하고싶습니다.

어랑군 읍 149인민반
김명화

농장벌의 주인들

안악군 룡산협동농장의 농장원 송금철, 송영철, 송성철, 송만철동무들은 조국보위초소에서 위훈을 세우던 병사시절의 값높은 삶을 오늘의 사회주의협동벌에서 더욱더 빛내여가고있는 미더운 제대군인형제들이다.

이들은 농업전선의 전초병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무슨 과업을 맡겨주든 농장원대중의 앞장에서 걸싸게 해제끼고있다.

로농통신원 원영일

평화보장에 선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지금 세계가 조선반도의 긴박한 정세에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미국은 남조선괴뢰들을 사촉하여 《천안》호사건 《조사결과》라는것을 발표한데 이어 얼마전에는 《응징》과 《보복》을 떠들며 그것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회부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을 격분시키고있다.

이미 명백히 밝힌바와 같이 우리는 이번 《천안》호침몰사건과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그 주범은 다름아닌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다. 정확히 말하면 《천안》호사건은 새로운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미쳐날뛰는자들에게 필요한것이다. 《천안》호사건은 전쟁광신자들이 조작해낸 자작극이며 이로 인해 조선반도정세는 전쟁전야의 첨예한 국면에 직면하게 되였다. 이번 사건이 미국의 정치군사적목적실현을 노린 날조극이라는것이 군사과학적인 분석자료들과 객관적인 현실을 통해 여지없이 드러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남조선을 내세워 이번 사건의 《조사결과》라는것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상정시켜 거수기를 발동하여 그 책임을 우리한테 넘겨씌우고 새로운 대조선정치군사적제재조치를 취하려고 맹렬한 막후조종을 벌리고있다.

현시점에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이미 상정된 《천안》호사건 《조사결과》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것은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가 마는가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문제이다. 유엔주재 우리 나라 상임대표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적한것처럼 이번 사건해결에서 관건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받아들여 《조사결과》를 확인할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사건의 진상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밝히는데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유엔헌장에 명기된대로 유엔성원국들의 자주권존중과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유지를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천안》호사건으로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가 조성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란다면 마땅히 우리가 이미 제기한 국방위원회 검열단이 현지에서 사건 《조사결과》를 확인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못할 리유가 없다.

지금 세계여론은 이번 《천안》호사건과 관련한 정세가 2003년 미국의 이라크침략당시를 련상케 한다고 평하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의 호전계층들의 거짓말을 합법화해줌으로써 기구가 미국의 강권과 전횡의 도구로 전락되였던 전철을 다시는 밟지 말아야 한다는것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피해당사자의 확인도 없는 일방적인 《조사결과》만이 상정되고 론의가 진행된다면 우리의 자주권과 안전이 침해당하게 될것은 명백하며 그로 인해 어떤 후과가 초래되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삼척동자도 알수 있는 문제이다.

미국이 수십년동안이나 남조선을 가로타고앉아 이곳을 거대한 핵무기고로, 병참기지로 전변시켜놓고 정세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끌고가는것은 전조선을 집어삼키고 나아가서 아시아침략을 위한 군사적발판으로 써먹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로부터 미국은 조선반도정세를 의도적으로 긴장시키면서 북남대결을 더욱 부추기고 조미적대관계를 최대로 악화시키는 길로 나아가고있다. 이번 《천안》호사건은 미국이 남조선괴뢰들을 사촉하여 조작해낸 특대형반공화국사기극이다. 사실 지금 조선반도에는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도 전면전쟁이 일어나 핵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는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여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발발은 이라크와는 대비도 안되는 엄청난 파국과 재난을 몰아올수 있다.

미국의 호전계층들은 우리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조선전쟁의 기본방식으로 정해놓고 그에 따른 무력배치와 작전지휘체계를 세워놓았다.

미국에 의해 나라의 자주권이 엄중히 침해당할 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리라는것은 명백하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있을수 있는 모든 경우를 예견하여 철저한 군사적대응태세를 갖추고 적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이번 《천안》호사건과 관련하여 내놓은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안을 외면하고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내놓은 《조사결과》만을 취급하는 길로 나간다면 그것은 조선반도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것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국제사회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이번 《천안》호사건을 우리가 제안한대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조선반도평화보장에 기여하여야 할것이다.

백 문 규

화를 불러오는 자멸행위

일본반동들이 해외파병을 합법화하려고 몹시 서두르고있다.

최근 일본자민당은 《무기수출3원칙》개정을 목표로 한 《방위계획대강》의 재검토에 착수하려 하고있다. 자민당은 《무기수출3원칙》개정을 통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과의 군사적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자위대》무력의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다그쳐 군사대국화,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위계획대강》의 내용을 더욱 정비보강하려 하고있다. 이보다 앞서 자민당은 임의의 시각에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수 있게 하는 《국제평화협력법안》이라는것을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번에 제출된 《국제평화협력법안》에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가능성과 조건, 무기사용기준 등까지 담겨져있다.

이것은 일본에서 날로 로골화되는 군국화책동의 일환으로서 결코 수수방관할 문제가 아니다.

《방위계획대강》은 일본이 군사대국의 지위를 획득하고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할수 있는 군사전략적, 전술적문제들을 명문화하는 침략문서, 군사계획문건이다. 지난해 정권의 자리에서 밀려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민당은 《방위계획대강》재검토에서 《방위비》와 《자위관》을 유지 및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새롭게 제기하고 륙상《자위대》의 편제인원을 현재보다 더 늘일것을 계획하였었다. 특히 우리 나라 등을 념두에 둔 그 무슨 《위협대처》를 구실로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다그치면서 선제공격능력까지 강화할것을 획책하였다.

자민당패거리들이 이번에 《국민불안해소》의 미명하에 《무기수출3원칙》의 개정을 통한 《방위계획대강》재검토놀음을 벌리려 하는것은 일본반동들의 군국화책동이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있음을 실증해준다.

재침문서, 전쟁씨나리오인 《방위계획대강》은 군사비를 늘여 《자위대》무력을 보다 현대화하고 증강하려는 일본반동들의 군국주의적야심의 산물이다. 오래전부터 《무기수출3원칙》의 준수를 부담시하면서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무진애를 써온 자민당패거리들이 이번에 《무기수출3원칙》의 개정문제를 또다시 들고나온것은 그들이 군사대국화, 해외팽창에 장애로 되는 제동장치를 야금야금 다 제거하려는 흉심을 품고있다는것을 드러내보인것이다.

이른바 《국제평화협력법안》도 그와 관련된다.

자민당은 집권기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의 미국의 《반테로전협력》을 위해 《자위대》의 해외군사활동내용 등을 규정한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의 실시기한을 계속 연장하였다. 일본 《자위대》는 《반테로전협력》의 미명하에 이미 해외군사활동경험을 풍부히 쌓았으며 그의 활동범위도 확대하였다. 이제 필요한것은 《국제평화협력》의 미명하에 합법적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수 있는 법률적틀거리를 마련하는것이다.

이것 역시 《자위대》무력을 세계일류급무력으로 만들어 군사대국의 지위를 획득하고 군사적해외팽창실현을 위한 조건과 능력을 완비하기 위해 일본반동들이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는 산증거로 된다. 민주당에 정권을 빼앗긴 후 정국혼란으로 군사대국화, 해외팽창에로 줄달음치던 《군국주의마차》의 고삐가 늦춰지고있는데 대해 속이 달대로 달아있는 자민당은 어떻게 해서나 《방위계획대강》을 재검토하여 군사대국화, 해외팽창야망실현에 박차를 가하려 하고있다.

도적은 캄캄한 밤만 꿈꾼다고 일본반동들은 자나깨나 해외침략의 포성을 울릴 기회만을 노리고있다.

일본반동들의 군사대국화, 해외팽창책동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것이다. 일본이 선제공격의 방법으로 조선재침을 실현하고 아시아정복의 길에 뛰여들려 한다는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일본반동들이 떠드는 《적기지공격능력보유》주장도 우리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흉계로부터 출발하고있다.

그러나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으로 일본에 차례질것이란 죽음과 파멸뿐이다. 무분별한 군국화책동은 섶을 지고 불속에 뛰여드는 자멸행위이다. 일본반동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조 택 범

조선의 단호하고도 원칙적인 립장을 전폭적으로 지지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가 4일 메히꼬인민사회당청사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메히꼬인민사회당, 조선통일지지 메히꼬위원회, 메히꼬조선친선협회를 비롯한 여러 정당, 단체와 정계, 언론계, 사회계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으며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초대되였다.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헤쑤스 안또니오 까를로스 에르난데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남조선괴뢰함선침몰사건과 관련하여 미제와 리명박역적패당은 의도적이고 강도적인 날조극, 모략극을 꾸며내고 반공화국대결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저들에게 정치적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모략극, 자작극을 꾸며내는것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시간이 감에 따라 이번 사건이 미국의 비호, 조장, 추동밑에 꾸며진 날조극, 모략극이라는것이 드러나고있다.

나는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과 외무성 대변인담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등을 통해 엄숙히 천명한 단호하고도 원칙적인 립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평화와 안전을 귀중히 여기는 세계의 모든 진보세력은 미제와 리명박역적패당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신랄히 폭로규탄하고있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고 일심단결된 조선인민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적들은 조선의 막강한 군사력, 조선인민의 강의한 의지와 배짱, 결단성을 똑바로 알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미제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려야 한다.

리명박역적패당은 친미사대, 반통일, 반공화국정책을 버리고 통일에로 지향하는 전체 조선민족의 흐름에 합세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혁명령도로 미제와 리명박역적패당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의 당과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 계신다.

그이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과 인민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책동을 선군의 위력으로 단호히 분쇄해버릴것이다.

범죄행위에 대해 경고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최근 한 TV방송과의 회견에서 국제인도주의원조선단에 대한 이스라엘의 범죄행위를 규탄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행위로 저들의 취약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당국은 그것이 자기들의 종말로 이어질것이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같은 날 이 나라 국방무력병참상은 이스라엘이 파멸의 《셈세기》를 시작하였다고 하였으며 국가최고안전리사회 서기장은 이스라엘이 불안과 절망감에 빠져있다고 조소하였다.

한편 이날 이란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공격행위를 해상테로로 락인하고 유태복고주의정권을 반대하는 신속한 조치를 취할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미국의 비난을 배격

브라질대통령 루이스 이나씨오 룰라 다 씰바가 최근 한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이란핵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터무니없는 비난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최근 미국이 이란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나라들의 외교적노력을 두고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있다느니 뭐니 하고 비방중상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악선전으로 락인하였다. 미국은 대화가 아니라 군사적대결만을 추구하고있다고 단죄하고 그는 평화적목적의 핵에네르기를 리용하는것은 이란의 응당한 권리이라고 강조하였다.

핵활동중지를 이스라엘에 요구

아랍국가련맹 총서기 아므루 마흐무드 무싸가 아랍경제연단에서 연설하면서 이스라엘이 핵활동을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는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위험한 핵무장화책동을 당장 걷어치우고 아랍령토에 대한 강점을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동지역은 반드시 비핵지대로 되여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제재책동을 반대

수리아외무상 왈리드 알 무알림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유엔을 내세워 이란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려고 획책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러한 제재책동은 실패를 면치 못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반대하고있다고 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이란핵문제를 대화와 외교적방법으로 해결할 때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물절약사업

중국 베이징시에서 지난해 1억 1 000만㎥의 물을 절약하였다.

한편 이 기간 재생물사용량은 그 전해보다 5 000만㎥ 더 늘어났다. 시에서는 주민들속에서 물절약선전사업을 강화하고있다 한다.

다리 건설

우간다에서 교통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닐강에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고있다.

다리건설공사가 최근에 시작되였다. 공사는 3년 6개월동안 진행되게 된다 한다.

정부에서 공사에 많은 자금을 할당하였다.

국내총생산 장성

인디아에서 올해 3월에 끝난 지난 회계년도에 국내총생산이 7.4% 장성하였다.

이 기간 특히 농업, 수산업, 광업분야에서 생산이 많이 늘어났다 한다.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나무심기

방글라데슈에서 1일 전국적인 나무심기깜빠니야가 시작되였다. 이 나라 수상 쉐이크 하시나는 이와 관련한 의식에서 연설하면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매 주민이 이번 깜빠니야기간에 3그루이상의 나무를 심을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정부가 올해말까지 식수사업을 통해 나라의 산림면적을 25%로 늘일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고 밝혔다.

말라리아방지노력

중앙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최근 이 나라 정부는 어린이들과 산모들이 있는 가정들에 모기장을 나누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가까운 시일안에 89만 6 000여세대의 가정들에 모기장이 공급되게 된다 한다.

협 조

에짚트와 아르메니야가 1일 정치, 경제, 문화분야에서 쌍무협조관계를 강화할데 대해 합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앙골라와 웰남은 과학,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호상 협조하기로 하였다.

문맹퇴치사업

니까라과에서 이미 제시한 2012년까지의 문맹퇴치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계획에 따라 지금 나라에서는 글을 모르는 모든 성인들과 어린이들이 공부할수 있도록 하는 초등교육과정안을 제정하여 집행하고있다.

또한 많은 정부기관들, 사회단체들이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교육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있다 한다.

일자리조성계획

나이제리아의 공업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조성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 이 부문 기업소들에서 10만개의 일자리가 마련되게 된다.

4일 이 나라 공업은행이 이에 대해 밝혔다.

본사기자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통지문 하달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가 얼마전 전군과 무장경찰부대들이 《군대기층건설요강》을 심도있게 관철할데 대한 통지문을 하달하였다.

새로 수정된 《군대기층건설요강》발표 1돐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통지문은 군대와 무장경찰부대들이 요강학습을 강화하고 기층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통지문은 간부들이 직접 아래단위들에 내려가 관병들의 요구를 알아보고 그것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경제 침체, 일자리 축감

◎ 뛰르끼예통계국은 5월 27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1.4분기에 전국적으로 살림집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되였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일본백화점협회는 올해 4월에 전국의 백화점들에서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7% 또 줄어들어 련속 26개월째의 감소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판매량감소는 경제침체로 주민들의 구매력이 떨어진것과 관련된다 한다.

◎ 세계적인 경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이딸리아에서 일자리축감사태가 빚어지고있다. 1일 이 나라 통계국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4월에 전국적으로 30만명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증대되였다 한다.

본사기자

무력전개책동

이스라엘이 최근 이란해안가까이의 페르샤만수역에 핵순항미싸일을 탑재한 3척의 잠수함을 전개하였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위협》을 구실로 이 수역에 1척의 잠수함을 영구주둔시키려고 획책하고있다. 잠수함들에는 1 500㎞의 사거리를 가진 순항미싸일들이 탑재되여있다 한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책동은 중동지역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조선중앙통신】

항 의 시 위

— 영국의 런던에서 5일 국제인도주의원조선단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만행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수천명의 각계층 시위참가자들은 시내거리를 따라 행진하면서 이스라엘의 반인륜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책임있는자들을 처벌할것을 주장하였다.

— 오스트랄리아의 시드니에서 1일 국제인도주의원조선단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만행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약 1 000명의 각계층 시위참가자들은 이스라엘을 살인자, 랍치범으로 락인단죄하고 범죄적만행을 당장 중지할것을 이스라엘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 도이췰란드의 베를린과 함부르그에서 4일 국제인도주의원조선단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만행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수천명의 각계층 시위참가자들은 반이스라엘구호를 웨치며 시내거리를 따라 행진하면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해적행위, 비인간적인 행위로 락인단죄하고 그와 같은 만행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그리스근로자들 당국의 그릇된 경제정책을 반대하여 시위

자주독립과 번영을 위하여

아프리카대륙에서 5월 25일 아프리카의 날을 기념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금으로부터 반세기전 아프리카에서는 서방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자주적인간으로 살려는 대륙인민들의 피어린 투쟁에 의해 1960년 한해동안에만도 세네갈, 나이제리아, 가봉, 중앙아프리카, 챠드, 니제르, 베닌, 또고 등 10여개 아프리카나라들이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3년 5월 25일 외세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독립을 이룩한 31개 아프리카나라 수뇌자들은 대륙나라들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자주권과 령토완정, 독립을 수호하며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협조관계를 발전시킬 목적밑에 에티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에서 회의를 가지고 《아프리카통일기구》헌장에 조인하였다.

이렇게 되여 오늘의 아프리카동맹의 전신인 아프리카통일기구가 창설되고 이날은 아프리카의 날로 기념되게 되였으며 그때부터 아프리카인민들은 식민지민족해방투쟁과 새 사회건설에서 단결의 위력을 과시하게 되였다.

아프리카인민들의 독립자주정신은 세기를 이어 오늘도 변함없이 계승되고있으며 자유롭고 번영하는 아프리카를 건설하기 위한 길에서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그 한 고리로 지난 4월 《아프리카재생기념비》가 세네갈독립 50돐을 맞으며 이 나라 수도에 건립되여 제막행사가 진행되였다.

기념비에는 자주와 새 사회건설을 지향하며 자체의 힘으로 광명한 미래를 개척해나가려는 아프리카인민들의 굳은 의지와 억센 기상이 조형예술적으로 잘 형상되여있다.

세네갈대통령 아브둘라이 와드는 아프리카인들의 영용한 모습을 형상한 이 기념비는 수세기에 걸친 무지와 인종차별을 박차고 일어나 자유와 독립을 향해 나가는 아프리카를 상징하고있다고 언명하였다.

제막행사에서 연설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현직, 전직대통령들과 국제 및 지역기구대표들은 기념비의 건립은 세네갈뿐아니라 아프리카의 자랑으로 된다고 하면서 아프리카인민들이 보다 큰 진보를 이룩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올해 독립 50돐을 맞는 대륙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새 세대들에게 독립자주정신을 심어주기 위한데 모를 박고 다양한 사업을 벌리고있다.

아프리카나라들은 독립의 전취물을 고수하고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는 유일한 길은 단결에 있다는 진리를 새기고 대륙의 통합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우간다대통령 요웨리 카구타 무쎄베니는 아프리카나라들이 또다시 외세의 식민지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의 힘으로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방도는 정치적통합을 실현하는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남아프리카대통령 쟈코브 게들레이흘레키사 주마는 모든 아프리카나라들이 정치적으로 단합하는것과 함께 경제적통합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나라들사이의 무역을 활발히 진행하고 도로와 철도, 전력망 등 하부구조건설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14차 아프리카동맹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에서는 대륙의 경제적통합과 발전을 다그치기 위한 《아프리카의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아디스 아바바선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선언은 대륙나라들이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정보통신기술발전정책을 일치시키며 지식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해나갈것을 호소하였다.

세계 진보적인류는 대륙의 자주독립과 발전, 번영을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리는 아프리카인민들에게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고있다.

본사기자

간판뿐인 미국의 《정책변화》 광고

현 미정부가 《변화》와 《발전》의 간판을 내든것이 지난해 1월이였다. 강권과 전횡, 일방주의정책으로 하여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과 배척을 당하던 이전 부쉬정권의 정책들을 부정하며 새로운 《변화》를 제창하여나선 미국의 집권계층은 집권초기에 적대적인 나라들에 《선의》의 손길을 내보이기도 하였다. 수십년동안 제재와 압력, 봉쇄를 가해오던 꾸바에 《화해》의 미소를 보냈는가 하면 저들의 《반테로전》에 가담, 협력하지 않는다는것을 구실로 《테로지원국》의 감투를 씌워놓고 군사적공갈을 일삼던 수리아와의 《관계개선》을 표방해나서기도 하였다. 미국은 지난해에 여러차례에 걸쳐 국회와 국무성대표단들을 수리아에 파견하여 회담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국의 미소외교의 진의도가 드러나고있다. 지난 5월 미집권자는 수리아가 미국의 안보에 《특별한 위협》을 조성하기때문에 이 나라에 대한 제재를 1년 더 연장할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이로써 이전 부쉬행정부가 6년전부터 실시하여온 수리아에 대한 제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또다시 지속되게 되였다. 지난해 9월 미국은 꾸바에 대한 제재조치도 연장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조치가 《저들의 리익에 부합》되는것이라고 공공연히 줴쳐대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미국은 《인권문제》를 걸고 반꾸바책동의 도수를 더한층 높이고있다. 미국무장관은 꾸바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바라지 않는다고 생트집을 걸며 국제무대에서 꾸바를 고립시키기 위한 여론공세를 펴고있다. 겉으로는 《정책변화》를 표방하면서도 돌아앉아서는 적대시정책을 추구하고있는 미국의 량면주의적인 처사는 현 미행정부의 《변화》와 《관계개선》타령이 세계민심의 반미기운을 누잦히고 국제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한갖 속임수에 불과하다는것을 말해준다.

대화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이, 적대시정책의 변화가 없이 《관계개선》을 운운하는것은 겉치레식말장난이다. 오늘 미국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있는 제재와 압력은 곧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이며 일종의 내정간섭행위이다.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부당한 간섭책동에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꾸바문제를 보아도 그렇다. 지난 2월 메히꼬에서 진행된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 국가수뇌자회의에서는 꾸바에 대한 경제봉쇄를 중지할것을 미국에 요구하는 문건이 채택되였다. 이에 앞서 유엔총회 제64차회의에서는 미국의 반꾸바봉쇄책동을 규탄하는 결의가 압도적다수가결로 채택되였다. 이것은 미국의 비렬한 봉쇄책동을 박차고 자주와 사회주의길로 꿋꿋이 나아가는 꾸바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과 지지의 표시인 동시에 미국에 타격을 주는 조치였다.

미국이 세계민심의 요구를 무시하고 꾸바를 고립압살하려 하는것은 어리석은짓이다. 미국이 오랜 기간 각종 악법들과 군사적힘을 발동하여 꾸바혁명을 말살하려 하였지만 헛물만 켰다. 오히려 꾸바는 반미자주적립장을 더욱 강화하면서 사회주의길을 따라 전진하고있다. 꾸바정부는 미국의 봉쇄를 뚫고 적극적인 정치외교활동을 벌려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대외적권위와 발언권을 한층 더 높이였다. 미국의 반꾸바책동의 강화는 새로운 《변화》를 제창하는 오바마정부의 대외정책의 기만성과 반동성을 보여줄뿐이다.

이란의 핵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평화적핵활동은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이다. 더우기 날로 늘어나는 에네르기수요, 급속히 고갈되여가는 화석연료자원실태는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평화적목적의 핵계획추진에로 떠밀고있다.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온실효과가스를 방출하지 않는 핵에네르기개발은 오늘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저들의 추종세력들의 핵활동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으면서도 이란의 평화적핵활동은 터무니없이 《핵무기개발》로 몰아 국제화하면서 반이란소동을 일으키고있다.

얼마전 이란과 브라질, 뛰르끼예사이에 핵연료교환합의가 이루어졌다. 국제사회계는 이것을 이란핵문제해결의 새로운 진전으로 평하며 유관국들이 회담탁에 마주앉을것을 바라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립장은 요지부동이다. 미국은 이번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날 저들이 작성한 새로운 대이란제재결의안을 유엔안보리사회에 제출하였다. 최근에 그것이 미국의 조종에 의해 유엔안보리사회에서 채택되였다. 미국은 저들의 손때묻은 주구인 이스라엘과 야합하여 이란에 대한 군사적공격가능성도 로골적으로 시사하고있다. 미국이 그처럼 평화적목적의 핵계획을 문제시하며 위협과 제재의 도수를 높이고있는것은 이란이 저들의 지배주의정책에 고분거리지 않고 반제자주를 지향해나가기때문이다.

승냥이는 결코 양으로 변할수 없다. 미국이 《변화》와 《발전》, 《협조》를 표방하는것은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위선적인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수법으로 미국은 자주적인 나라들을 회유기만하여 반미감정을 약화, 무마시키고 저들에 대한 환상을 조성함으로써 지배주의야망을 손쉽게 이루려 하고있다. 다시말하여 유화전술, 미소외교로 다른 나라들을 녹여내자는것이 미국이 표방하는 《변화》와 《발전》정책이다.

미집권자는 이렇게 단언하였다.

《미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행정부는 전쟁을 포기하지 않을것이다.》

변함없는 호전성과 침략성, 이것이 바로 새로운 《변화》를 떠드는 현 미행정부정책의 본질이다. 미국의 지배주의적본성과 야망이 달라지지 않는 한 《정책변화》란 있을수 없다.

본사기자 배 금 희

ㄱ-01104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실 321-4328. 편 집 위 원 회